사회주의도덕과 법

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1 (2012)

차　　례

1. 사회주의도덕

제1과. 온 세상이 높이 모신 위대한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풍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유구한 인류력사에는 당대에 이름을 떨치고 후세에까지 전해진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 내세운 위인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같으신 위대한분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사회주의승리의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분이시였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으며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걱정, 먹을 걱정, 쓰고살 걱정을 모르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기때문에 세상사람들은 누구나 살기 좋은 사회주의를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오랜 기간 투쟁하여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어떻게 세우고 발전시켜나가야 할지 몰라 많은 곤난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많은 로작들을 집필하시여 사회주의사회란 어떤 사회이며 사회주의를 세우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승리를 위한 길에서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이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했다고 떠벌이고있을 때 사회주의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의연히 살아있고 과학이기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밝힌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내놓으시여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재생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특히 선군혁명령도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총대를 틀어쥐시고 강성대국도 건설하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도 실현해나가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하고 완성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으로 되였습니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사회주의승리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스승으로,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며 우러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대적도 한손에 쥐락펴락하신 강철의 령장이시였습니다.

지구상에는 온갖 악한짓을 다하는 원쑤놈들이 많습니다.

그런 놈들은 바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상에서 제놈들이 제일 강하고 힘이 세다고 우쭐렁거리면서 세계도처에서 다른 나라들을 깔보고 억압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놈들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을 때 제국주의우두머리들은 《조선에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정일**장군이 최고사령관으로 계신다. 조선에 덤벼들었다가는 뼈도 못춘다.》, 《**김정일**장군이 계시는 조선을 건드렸다가는 지구가 박산이 날수 있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지략앞에서는 수만의 대적도 옴짝달싹 못하였습니다.

적들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할 때 있은 일입니다.

무려 20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하늘, 땅, 바다에서 화약내를 풍기며 날뛰던 적들의 공격서렬이 어느덧 군사분계선최전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불의에 인민군부대들의 대기동을 명령하시였습니다.

여기에 기가 질리고 놀란 적들은 당장 무슨 일이 터질줄 알고 《훈련비상》으로부터 《전투비상》으로 넘어가느라고 복닥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리하여 놈들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제일 중요한 대목에 가서 뒤죽박죽이 되였습니다.

적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비범한 군사전략과 담력앞에 넋을 잃고말았던것입니다.

원쑤놈들을 한손에 거머쥐고 쥐락펴락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지략을 두고 적들의 군사전문가들은 《북조선의 **김정일**령도자의 대활약은 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만 한 특출한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놀라운것은 판단이 정확하고 결심이 단호하며 타격이 무자비한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참으로 지략으로 현명하시고 담력과 의지로 강하셨으며 령군술이 탁월한 강철의 령장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랑과 믿음, 인덕으로 천만사람들을 한품에 안아주시였습니다.

세상사람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한번 만나뵙고도 그 뜨거운 인간애에 이끌려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한 인사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만나뵙고나서《나는 **김정일**장군이 세계에서 제노라고 하는 제국주의강대국과 당당히 맞서는것을 보면서 그이는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분이시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나뵙고보니 그분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뜨거운 정 넘치는분이시라는 커다란 감동을 금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인사의 심정만이 아니라 온 세상사람들의 하나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 설계하여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였습니다.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천만가지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쉬임없는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시려고, 인민이 행복하고 인민의 나라가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바쳐오시였습니다.

정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적생애를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은 우리 학생들모두의 숭고한 의무이며 도덕의리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간곡한 유훈을 지켜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나가는 참된 아들딸이 되여야 합니다.

과외읽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

◯ 로씨야의 한 이름있는 시인은《나는 오랜 기간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노래와 가사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그이는 나를 비롯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신 인류의 태양, 세기의 위인이시였다. …

그이는 영원히 진보적인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모스크바의 한 철학박사는《**김정일**동지의 존함은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견결성과 원칙성, 진정한 국제주의자의 상징으로 남아있을것이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의 륭성번영과 행복을 위해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세계사회주의위업에 쌓으신 그이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김정일동지의 서거는 사회주의위업, 세계자주화위업에 있어서 돌이킬수 없는 손실로 된다.

김정일동지는 지니신 풍모와 이룩하신 업적으로 하여 진보적공산주의자들과 지구상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심장속에 남아있을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뻬루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위원장은《**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였다. 그이의 불멸의 업적은 력사에 아로새겨져있으며 조선인민뿐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다.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이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전하고있으며 그이의 위대성을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김정일동지를 언론들은 세계적인 위대한 수령으로 칭송하고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2과. 자기의것을 귀중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자기 민족과 인민,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내세우려는 열렬한 애국심의 표현입니다.

자기의것에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제도, 우리의 령토와 우리의 재부 등 우리의 모든것이 속합니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는데서 우리 인민이 자체로 만든 물건을 귀중히 여기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만든 우리의 물건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들에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며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으며 지혜가 깃들어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곧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노력을 고맙게 여기는것으로 됩니다.

인민의 아들딸들로서 자기 인민이 만들어낸 물건을 하찮은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이며 자기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조국도 사랑할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만든 자기의것은 앞으로 더 좋은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밑천입니다.

자체의 힘으로 만든것이 있어야 그것을 밑천으로 하여 더 좋은것을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연필생산의 력사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조국해방직후에 우리 나라에서는 새 조국 건설을 위하여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 헤아릴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필요한 연필생산문제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의정에 놓고 토의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로동계급은 첫 연필을 만들어내게 되였습니다.

그때 그 연필을 받아쥔 사람들은 눈물없이는 글을 쓸수 없었습니다. 연필의 질이 좋아서가 아니였습니다.

그 연필이 오랜 연필생산력사를 가진 나라들의 번쩍거리는 연필보다 나을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연필을 어느 연필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연필심이 닳아 꽁다리가 될 때까지 아껴가며 썼습니다. 그것은 그 연필이 다름아닌 우리가 제손으로 만든것이였기때문입니다.

일제원쑤놈들의 악독한 략탈정책으로 하여 귀중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의것에 대한 그리움에 살아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는 그 한자루의 연필도 그토록 귀중했던것입니다.

비록 질은 남의것보다 못하였으나 그 연필이 오늘은 멋진 연필로 되고 우리가 즐겨쓰는 수지연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만든 연필이 남의것만 못하다고 하여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줴버렸다면 오늘의 연필은 생겨나지도 못했을것입니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면 남의것은 다 좋고 자기의것은 다 나빠보이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사상까지 버리게 됩니다.

약 하나를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약은 다 좋으며 가짜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놈들이 인민들에게 팔아먹는 약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약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것이기때문에 가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자본가놈들은 그런것에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돈을 많이 벌 생각만 하면서 가짜약도 진짜약처럼 포장을 요란하게 하여 팔아먹습니다. 자본주의상품의 이러한 내막을 모르고 거기에 환상을 가지게 되면 점차 제 정신을 잃고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환상도 가지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덮어놓고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것보다 훨씬 좋은 제것까지도 하찮게 보며 차츰 자기의 사상을 버리고 남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역적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우리 인민이 만들어낸 물건을 귀중히 여길뿐아니라 그것을 즐겨 사용합니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것은 남다른 차림새나 물건에 호기심을 가지는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다른 차림새나 물건에 호기심을 가지는것은 별치 않은것 같지만 그것이 자라면 점차 나쁜 마음까지 생겨나며 자신을 구렁텅이에로 몰아갑니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나라 물건에 호기심을 가지지 않으며 설사 다른 나라의것보다 못한 우리 물건을 볼 때에도 남의것을 부러워하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건을 그보다 더 좋게 만들 결심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은 물건을 하나 보아도 우리의것부터 찾으며 우리의 물건을 쓰는데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물건을 쓰는데 버릇되면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 몸에 푹 배게 되며 장차 커서도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 좋게,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남의것을 더 좋아하거나 환상적으로 대하며 남의것을 본따려 하는것은 애국심이 없는 행동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을 비롯하여 우리의것을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적극 내세우는 기풍을 철처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례절, 옷차림과 머리단장, 생활문화, 음식문화 등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의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즐겨쓰는데 습관되여야 합니다. 또한 한가지 일을 하고 한가지 물건을 만들어도 다른 나라의것보다 더 좋게, 더 훌륭히 창조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어릴 때부터 굳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온 세상에 빛내이려는 각오를 안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제3과. 하루를 살아도 락천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락천적으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락천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믿고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즐겁고 명랑하게 사는것이 락천적으로 사는것입니다.

락천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사람은 옳은 일을 할 때 신심을 가지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게 되고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옳은 일이란 곧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입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살기 위하여 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라는것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비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여 그것을 뚫고나갑니다.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혁명의 길은 멀고도 간고합니다. 혁명의 길에서는 뜻하지 않는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 나설수도 있고 일시적인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자기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믿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며 난관을 맞받아 굴함없이 뚫고나가는 사람이 락천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지난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굳은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비관을 몰랐으며 언제나 생활을 락천적으로 꾸리고 승리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감히 싸웠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안투현(안도현) 처창쯔(처창즈)부근에서 5.1절을 기념하던 때였습니다. 5.1절을 앞둔 항일유격대원들에게는 식량은 더 말할것도 없고 소금마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하늘에서는 일제의 비행기가 미친듯이 돌아쳤고 적들은 2중3중으로 밀림을 포위하고있었습니다. 유격대원들은 며칠째 낟알구경을 하지 못한채 적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유격대원들은 누구도 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떨쳐나 물도랑에서 개구리를 잡아 그것으로 끼니를 에웠습니다. 《연회》상에 오른 개구리료리를 진수성찬보다 더 달게 먹은 유격대원들은 그날 저녁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우등불가에 둘러앉아 온밤 즐거운 오락회와 조국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등불가에 모여앉은 유격대원들에게 오늘의 개구리료리가 대동강의 숭어료리로 전환될 날이 멀지 않아 반드시 오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적들은 결코 우리를 굴복시킬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멈춰세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유격대원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혁명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였으며 살기 좋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에 해방의 새봄을 기어이 안아오리라 굳게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습니다.

우리는 학습과 로동에서 피로하거나 힘에 부칠 때 맥을 놓지 말아야 하며 싫증을 이겨낼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몸이나 마음이 지쳐 괴로운 때도 있고 힘겨운 때도 있습니다. 괴롭거나 힘에 부칠 때 맥을 놓고 주저앉는 사람은 락천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괴롭고 힘에 부칠수록 힘과 용기를 내며 이악하게 일떠서는 사람이 락천적인 사람입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실망하거나 공포감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약절반, 마음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나서 앓을 때 건강을 회복할수 있다는 희망을 잃고 병에 겁을 먹으면 병도 제대로 치료할수 없습니다.

병도 마음먹기탓이라고 생각하며 병과 싸워이기려는 사람만이 병도 잘 고칠수 있고 생활을 명랑하게 할수 있습니다.

과오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과오나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지만 범한 과오나 잘못을 빨리 씻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용기를 잃고 주저하고 동요하는 사람은 과오나 잘못을 깨끗이 씻을수도 없고 생활을 락천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과오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용기를 내여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과오나 잘못도 고치고 락천적으로 살아갈수 있습니다.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는것은 특히 조국이 시련과 난관을 겪고있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가는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자기는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바칠 각오와 신념, 어떤 역경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락관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고있습니다.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은 력사상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승리의 신심높이 웃으며 헤쳐넘었으며 오늘은 통일된 조국의 앞날과 강성대국을 눈앞에 그려보며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는것은 우리 사회 인간들의 참다운 모습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 생활기풍입니다.

우리모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언제나 락천적으로 살며 학습과 소년단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제4과. 남녀사이의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남녀간의 관계는 참다운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믿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동지적관계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남동무들과 녀동무들이 학교길도 같이 가고 학습과 조직생활도 같이하고있습니다.

남녀사이의 례절을 잘 지켜야 진심으로 믿고 아끼는 참다운 동지적관계를 이룰수 있으며 서로 합심하여 집단앞에 나서는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남녀사이의 례절을 잘 지키자면 무엇보다도 남녀간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을 찾을 때 이름과 함께 《동무》라는 말을 붙여야 합니다.

남동무가 녀동무를, 녀동무가 남동무를 부를 때에는 반드시《동무》라는 말을 붙여써야 례절있는 부름말로 됩니다. 부름말을 쓸 때 나쁜 별명을 붙이거나 《야》, 《여》로 부르는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됩니다.

부름말을 친근하고 다정한 감정을 담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따뜻한 정이 오가고 동지적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남동무들이 녀동무들을 깔보거나 얕보지 말아야 합니다.

녀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듯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우기 남동무들속에서 녀동무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불쾌한 일이 있다고 하여 큰소리를 치고 주먹을 휘둘러 순종하게 하려는 무례한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녀동무들의 말이나 주장을 무시하거나 꺾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녀동무들이 말을 하거나 자기 의견과 생각, 주장을 내놓을 때 웃거나 면박을 주는것, 귀담아듣지 않는것 등은 다 녀동무들을 업수이 여기는 행동입니다.

녀동무들이 하는 일에 끼여들어 훼방을 놀지 말아야 합니다. 녀동무들이 말을 하는데 방해하거나 그들의 놀음판에 끼여들어 놀음을 파탄시키는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녀동무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녀동무들이 남동무들을 원칙적립장에서 인정미가 있게 대하여야 합니다.

남동무들의 그릇된 행동이나 생각, 주장을 무턱대고 옳다고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남동무들을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대하고 말 한마디를 건늬여도 따뜻하고 살뜰하게 하여야 합니다.

남동무들이 한마디 할 때 그에 뒤질세라 두번, 세번의 대답질을 하거나 남동무에 대해 뒤소리를 하며 복잡하고 수다스럽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남동무와 녀동무가 서로 대상할 때 몸단장을 례절있게 해야 합니다.

옷매무시를 바로 하여야 합니다. 한학급동무라고 하여 남동무들과 녀동무들이 옷차림을 깨끗하고 단정히 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것은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몸가짐을 바로 하여야 합니다.

더우기 녀동무들이 남동무들앞에 서거나 앉을 때, 말을 주고 받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지나갈 때 례절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남동무들도 녀동무들앞에서 몸가짐을 점잖게 하여야 합니다.

남녀사이의 례절을 잘 지키자면 다음으로 남녀간에 서로 돕고 양보하는 고상한 풍모를 발휘하여야 합니다.

우선 남녀간에 서로 도와주는 미풍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남동무들이 녀동무들과 함께 먼길을 걷거나 일을 할 때 녀동무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것은 하나의 도리로 됩니다.

남동무들이 할 일을 육체적으로 약한 녀동무들에게 맡긴다든가 녀동무들이 힘들어하는것을 보고도 못본척 하는것은 남자로서 초보적인 례의도 없는 행동입니다.

녀동무들은 남동무들과 같이 공부하며 생활하는데서 녀자다운 품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동무들의 거친 행동도 친절하고 조용히 깨우쳐주며 생활환경을 꾸리는데서도 알뜰하고 깐진 일솜씨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녀자의 손이 가야 할 일을 남동무들이 할 때에는 녀동무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남동무들과 녀동무들이 서로 모르는것을 친절히 배워주고 배우는것은 믿음과 동지애를 키우는 좋은 계기로 됩니다.

또한 남녀간에 서로 양보할줄 알아야 합니다.

관람을 할 때 남동무들이 녀동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것을 비롯하여 서로 양보하는 미풍을 높이 발휘하면 오가는 믿음이 커지고 집단의 화목도 보장할수 있습니다.

남녀사이의 례절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지켜나가자면 남녀간에 비도덕적인 행동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남녀사이에 그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의 자그마한 싹에 대해서도 제때에 타격을 주어야 하며 동무들의 방조와 비판을 통하여 제때에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녀사이의 례절을 잘 지킴으로써 온 사회에 고상하고 건전한 사회주의도덕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제5과. 자유주의는 위험한 사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습성은 작은것으로부터 자라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주의는 자기 개인의 리익만을 생각하면서 조직생활과 규률을 싫어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사상입니다.

자유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것이지만 결코 자기 개인의 리익만을 생각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직과 집단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반드시 일정한 질서와 규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민이 주인으로 된 나라들에서는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질서도 있고 도덕도 있으며 조직과 집단생활에서 지켜야 할 이러저러한 규범도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질서와 규범을 저마다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참다운 자유를 누릴수 없게 됩니다.

자유주의는 바로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는 질서와 규범, 조직과 집단의 규률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나쁜 사상인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조직과 집단의 힘을 약화시키는 해로운 사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주의사상이 있으면 조직과 집단의 규률을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기때문에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면 조직과 집단의 힘이 약해져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을 놓고보아도 규률이 있는 학급은 공부도 잘하고 어떤 일을 해도 다른 학급의 앞장에 서지만 자유주의를 하는 동무들이 있는 학급은 공부도 잘 못하고 무슨 일을 해도 뒤자리만 차지합니다.

한두사람의 자유주의로 해서 조직과 집단에 큰 손실을 줄 때도 있고 커다란 혼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만일 기차나 뻐스를 타고 답사나 견학을 가려고 할 때 한두학생이 자유주의를 해서 대렬에서 떨어진다면 학급이 기차를 탈수 없게 되고 모든 동무들이 자유주의적인 행동을 한 동무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혼란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한두사람의 자유주의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투에서 실패를 낳을수 있고 전우들이 목숨을 잃게 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실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사람과 나라까지도 망하게 하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자유주의는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자유주의는 착취계급의 사상입니다.

착취계급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또 조국과 인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을 생각하며 자기를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키는 악행도 서슴없이 합니다.

자유주의는 착취계급의 이런 사상에서 나온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유주의에 물젖은 사람은 조국과 인민, 집단과 조직을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나라의 법질서도 지키지 않으며 도덕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와 집단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으로 나중에는 사회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유주의사상이 들어오면 나라까지도 망하게 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하던 이전 동유럽나라들이 망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도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물젖었기때문입니다.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뒤집어엎는데 앞장섰던 놈들은 다 자유주의에 물젖은 불량배족속들이였습니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해롭고 위험한 사상입니다.

자유주의는 작은것으로부터 자라나 나중에는 엄중한 행동까지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조직에 의거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 자유주의적인 습성이 절대로 자라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자유주의는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눈에 보이지 않는 좀벌레와 같다.》

제6과. 김광철영웅

김광철중학교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학교앞에 세운 영웅의 반신상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쩍 벌어진 앞가슴에 빛나는 영웅메달, 아직도 애젊음이 채 가시지 않은 꽃나이의 름름한 모습!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25년이라는 짧은 생애에 평범한 삶으로는 몇백년을 산대도 오르지 못할 그 영광의 언덕에 선 영웅을 회고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진정으로 동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동지를 위해서는 사선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혁명가들은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을 자기 삶의 요구로 여깁니다.

그것은 혁명동지가 하나의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혁명위업을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 귀중한 전우이고 친근한 형제이기때문입니다.

혁명가들은 동지를 제일 귀중히 여기며 필요할 때에는 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칩니다.

김광철영웅은 동지적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실천활동으로 보여준 참다운 혁명전사입니다.

어느해 겨울이였습니다.

어느날 김광철영웅이 지휘하는 소대는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었습니다.

김광철소대장은 자기의 신입병사시절에 첫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갓 입대한 대원들의 전투임무수행을 잘 도와주고 보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진하던 소대앞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불의의 정황이 생겼습니다. 한 전사가 고리를 뽑고 던진 수류탄이 그만 나무가지에 맞고 그의 발앞에 떨어졌던것입니다. 주위에는 10여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수류탄의 격침이 뢰관을 때리는 《딱—》소리가 병사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제 1초만 지나게 되면 요란한 폭음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뜻밖의 일에 병사들은 어쩔바를 몰라했습니다.

순간 김광철소대장이 벼락치듯 구령을 웨쳤습니다.

《소대 엎드렷!》

그리고는 격침이 떨어진 수류탄결에 있던 전사들을 밀어내고 터지는 수류탄을 가슴으로 덮었습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수류탄이 폭발하였습니다.

하지만 10여명의 병사들에게는 그 폭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귀전을 울리고 가슴을 우뢰처럼 때린것은《엎드렷!》하고 웨친 소대장의 마지막구령소리뿐이였습니다.

이렇게 김광철소대장은 귀중한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꽃다운 청춘을 바치였습니다.

수류탄의 격침이 떨어지면서 뢰관을 때리는 소리가 들린 그때 소대장의 바로 옆에는 웅뎅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웅뎅이속에 몸을 날려 엎드렸다면 머리칼 한오리 상하지 않고 살아남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한번 깜빡하면 지나가버릴 그 1초사이에 자기 한몸보다 혁명동지들이 더 귀중하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터지는 수류탄을 온몸에 품어버린것입니다.



김광철영웅의 영웅적인 희생성은 1초밖에 안되는 그 짧은 순간에 발휘된것이지만 결코 하루이틀에 키워진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김광철영웅은 자기 동무에게 수첩을 준적이 있었는데 그 첫 장에는 숭엄한 글발이 적혀져있었습니다.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1930. 6. 20
너는 김혁
나는 성주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동지이고 동지를 위해서는 모든것을 다 바친다는 확고한 신념이 담긴 글발, 그것은 김광철영웅이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신념의 웨침이기도 했습니다.

하기에 그는 군사복무의 전기간에 걸쳐 동무들을 무한히 사랑하였으며 그 뜨거운 사랑으로 대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들로 키우기 위해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는 궂은비가 내리는 여름밤이나 눈보라가 울부짖는 겨울날이면 례외없이 갓 입대한 병사들과 함께 보초근무를 서군 하였습니다.

1분대의 한 전사가 처음으로 근무에 나가게 되였을 때 분대장이 몸이 불편해한다는것을 알아차리고 분대장대신 자기가 전사와 함께 보초소로 나간것은 그 많은 이야기가운데 한 토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도 역시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는 추운 겨울날이였습니다.

처음으로 근무를 수행하게 된 전사는 긴장했지만 곁에 소대장이 있다는것으로 배심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런데 머리우로 불어스치는 눈보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온몸을 얼어들게 하였습니다. 추위속에서 단련되지 못한 전사는 종시 발을 구르고야말았습니다.

그것을 안 소대장은 말없이 그의 두발을 끌어당겨 자기 가슴에 품었습니다.

순식간에 지휘관의 뜨거운 동지적사랑이 전사의 온몸에 뜨겁게 흘러들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어머니의 품속에도 발을 넣고 녹여보지 못했습니다.》

전사가 울먹이며 하는 말이였습니다.

그러자 김광철소대장은 나직이 이렇게 속삭이였습니다.

《우린 위대한 수령님과 최고사령관동지를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한가족, 친형제야. 그래서 나는 순철이의 친형이 되는거지. 초소근무를 서느라면 눈보라치는 겨울도 이겨내야 하고 궂은비 내리는 장마철도 겪어야 해. 이렇게 어려울 땐 초소는 동무들에게 맡기오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초소를 철벽으로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다듬어야 해. 그러면 눈보라도 장마도 이겨낼수 있지.》

김광철영웅은 이런 동지적사랑을 지니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동지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다하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한 그 전날밤이였습니다. 소대는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행군하고있었습니다. 무릎을 치는 눈길을 헤치며 행군하는 대오의 앞뒤를 오가면서 김광철소대장은 뒤떨어지는 병사들이 없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가파로운 령길에서 그는 힘들어하는 전사의 배낭을 메고 행군하였습니다.

휴식구령이 떨어지자 소대는 재빨리 우등불을 피웠습니다.

불무지를 돌아보던 소대장은 한 전사의 신발에서 물이 흐르는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웅뎅이에 빠졌던것입니다.

(발이 얼지나 않았는지?)

그는 전사의 곁에 앉아 신발을 벗기고 발싸개를 풀었습니다.

《상하진 않았어. 됐어, 천리라도 갈수 있어.》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전사의 두발을 주물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신발과 발싸개를 전사의 젖은것과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김광철영웅은 길지 않은 짧은 생애에 수많은 동지적사랑의 꽃을 피웠을뿐아니라 동지를 위한 참다운 자기희생성의 모범을 보여준 당과 수령의 참다운 혁명전사입니다.

동지를 위해 자기 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실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광철영웅의 이러한 모범을 본받아 어려서부터 동무들을 귀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동무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줄 아는 참다운 동지애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옛날 속담에는 팔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고 했지만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혁명동지이다.》

《혁명동지를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된 동지를 얻을수 있으며 동지의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릴수 있다.》

《동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당과 혁명에도 충실할수 없다.》

제7과. 도와준 사람에 대한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사이에 주고받는 도움속에 그 사람의 뜨거운 마음과 수고가 깃들어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사이에 주고받는 도움속에서 서로 정을 두터이하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으면 응당 자기를 위하여 기울인 그 마음과 수고에 따르는 례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잘 표시하여야 사람들사이에 오고가는 정이 두터워지고 서로 화목해질수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에 대한 례절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도움을 받았을 때의 인사말을 잘하는것입니다.

도와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진심으로 뜨겁게 하면 그로하여금 도움을 주었다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반대로 도와준 사람에게 인사말 하나 똑똑히 하지 못하거나 별로 큰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한다면 그에게 섭섭한 생각을 가지게 할수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에 대한 인사말에서는 우선 고마움에 대한 마음표시를 적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도와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 많이 쓰이는 인사말은 《고맙다.》, 《감사하다.》입니다. 이 말속에는 도와준 사람의 성의와 수고에 대한 고마움이 다 담겨져있습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생활속에서 자주 있게 되는 도움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사이에 받았을 때에는 《고맙다.》, 《감사하다.》 등의 말로 고마움에 대한 인사를 명백하면서도 간단히 표시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시하면 안될 내용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영철이, 책을 빌려주어 고마와.》, 《아저씨, 태워다주어 감사합니다.》등으로 도움받은 내용을 밝히는것과 함께 도와준 사람에 대한 부름말을 덧붙이며 인사를 표시할수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에 대한 인사말에서는 또한 도와준 사람의 의도를 잘 가려보고 그에 맞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도와주는 내용들가운데는 도움받는 사람의 학습과 생활에서의 성과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있는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때의 인사말은 도와준데 대해 잊지 않고 그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잘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도와준걸 잊지 않고 공부를 잘하겠다.》, 《내 이걸 가지고 꼭 우리 학급의 영예를 떨치겠다.》등으로 도와준 사람에 대한 보답의 마음이 나타나게 례절을 표시해야 합니다.

도와준 사람에 대한 례절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도움을 받은 이후에도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인사를 잘하는것입니다.

도와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도움받을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머리속에 오래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여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잊지 못해하며 그에 따라 지켜야 할 례절도 있게 되는것입니다.

도와준 사람을 그후에 다시 만났을 때의 인사말에서 기본은 이미전에 도움받을 때의 고마움이 뚜렷이 안겨오게 하는것입니다.

《영철이, 며칠전 나를 돕느라고 땀을 많이 흘리였는데 몸은 일없니?》, 《요전에 정말 고마왔어.》라고 인사를 하면 도와준 고마움을 잊지 못해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안겨오게 됩니다.

도와준 사람이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에는 설명절이나 생일날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잊지 말고 인사편지를 하여야 합니다.

도와준 사람에 대한 례절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도움받은데 대한 보답이 실천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것입니다.

도움에는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는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습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면 높은 학업성적을 쟁취함으로써 도와준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학업성적이 떨어져있다면 그것은 학습방조를 준 동무에게 도리를 지키지 않는 례절없는 행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도와준 사람에게 도움줄 일이 생기면 힘껏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여왔습니다.

이 말에는 도와준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그들사이의 정이 보다 더 두터워진다는 생활의 교훈이 담겨져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을줄만 알고 남을 도와주는데 무관심하면 도덕도 의리도 없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도와준 사람에 대해 무엇인가 도움줄것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도울것이 있으면 성심성의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도와준 사람에 대한 례절을 잘 지킴으로써 동무들사이에 언제나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하고 다정한 생활기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제8과. 낡은 생활양식을 버리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낡은 도덕과 생활인습은 착취사회의 유물이며 밖으로부터 부르죠아사상과 썩어빠진 생활풍조를 끌어들이는 매개물입니다.》

우리는 착취사회의 낡은 생활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생활양식은 그 사회에 맞게 만들어진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에 따라 생활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사회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취사회의 생활양식은 주로 지주, 자본가와 같은 착취계급의 리익에 맞게 세워진 자본주의적생활양식이고 사람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의 생활양식은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세워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입니다.

생활양식은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착취사회가 무너지고 사회주의사회가 서면 낡은 생활양식은 점차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바뀌여집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사회가 세워졌다 하여 낡은 생활양식이 저절로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아 전해내려오는 좋지 못한 풍습이나 버릇 같은것들이 오늘도 우리 생활속에 적지 않게 남아있는것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일부 낡은 생활양식이 이모저모에서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남아있는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박혀있고 또 오랜 세대와 새 세대가 어울려살면서 새 세대들이 낡은 생활양식에 물드는것과 관련됩니다.

낡은 생활양식은 여러가지로 표현되면서 사회주의생활양식이 세워지는것을 방해합니다.

낡은 생활양식은 허례허식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실속이 없이 꾸며서 하는 례절과 필요없이 랑비하면서 걸치레를 하는것이 허례허식입니다.

허례허식은 잔치상을 차리는데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잔치상을 요란하게 차리고 많은 사람들을 청해다가 먹자판을 크게 벌리는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고 랑비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혁명과업수행에도 지장을 줍니다.

원래 잔치를 요란하게 차리고 많은 사람들을 청해다가 먹자판을 크게 벌리는것은 착취사회에서 잘 사는 놈들이 돈자랑, 재물자랑을 하면서 제 몸값을 높이기 위하여 하던짓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푼전을 아껴가며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할 오늘의 시대에 와서 잔치상 같은것을 요란히 차리고 먹자판을 크게 벌리는것은 공화국공민의 자각이 없고 도리에도 어긋난다는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미신행위도 낡은 생활양식의 표현입니다.

낡은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팔자타령을 하고 손금을 보며 점을 치고 신수를 보는것과 같은것들은 모두 다 허황한 미신행위입니다.

미신행위는 자기 힘, 인민의 힘을 믿지 못하고 과학을 모르는 미개한 사람들이 하는짓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팔자가 나쁘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사람마다 운명이 정해져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돌아치는 사람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손금을 보는것도 허황하기 그지없습니다.

손금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점을 치고 신수를 보는것 역시 허황하기 그지없는것입니다.

낡은 생활양식은 사람들이 망탕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데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술은 사람의 건강에 해로울뿐아니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술때문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일생을 망칠수 있습니다.

담배는 그것을 피우는 사람뿐아니라 피우지 않는 옆의 사람들에게도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때문에 담배피우는것을 위생상식이 없고 미개한 행동으로 보고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벌어지고있습니다.

학생들은 절대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망탕 마시고 추태를 부리며 담배를 꼬나물고 피우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타락한 청소년들이나 하는짓입니다.

낡은 생활양식은 이밖에도 말과 행동, 례절 등 일상생활의 여러 면에서 나타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 그 어떤 낡은 생활양식의 자그마한 요소도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제9과. 마음의 기둥

사람이 한생을 살아가자면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신심을 잃거나 락심하지 않고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게 됩니다.

지난날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혁명투쟁을 벌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항일혁명투사들의 심장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마음의 기둥이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기둥은 필승의 신념을 낳고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를 낳습니다.》

항일혁명투쟁은 그 어떤 국가적후방도 없이 적들의 포위속에서 진행된 간고한 투쟁이였습니다.

한두해도 아닌 20여성상을 강대한 적들과 맞서싸운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혈전만리, 불길만리를 헤쳐가는 그 나날들에는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고 모진 굶주림과 추위,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항일혁명투사들은 언제나 주저하거나 동요할줄 몰랐으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갔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간고한 혁명의 길을 그렇듯 꿋꿋이 걸어올수 있은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였기때문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야말로 그들이 그 어떤 모진 곤난도 뚫고나가 승리하게 한 힘의 원천이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그 투철한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되여있습니다.

예술영화《이 세상 끝까지》에 나오는 태성할머니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깨여나도 수령님생각부터 했고 일을 하여도 언제나 수령님을 모시고 일한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밤에 잠을 자도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만을 바라는 마음을 안고 모대기였습니다.

이런 태성할머니였기에 동트는 새벽이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걸으실 현지지도의 길을 정성들여 쓸고 쓸었습니다.

태성할머니는 며느리와 영예군인인 정철이 그리고 손자들앞에 전사한 맏아들의 군복을 꺼내놓고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수령님이 계시고 수령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산다. 수령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수령님의 교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믿고 끝까지 관철하였습니다.

전쟁후 우리 나라에서는 영화에 나오는 도농산국장과 같은 종파놈들이 당을 반대해나섰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이 잘살려면 농사를 잘할뿐아니라 축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종

파놈들은 벌방에서는 절대로 축산을 발전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돼지를 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몇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안 기르는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태성할머니는 벌방에서도 돼지를 기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다, 우리 인민들이 잘살려면 반드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꿋꿋이 싸웠습니다.

태성할머니가 이렇게 꿋꿋이 맞서나서자 종파놈들은 어떻게 하나 축산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머니를 위협도 해보고 압력도 가했습니다.

축산기술자인 옥성이를 딴데 옮겨버리고 맏며느리인 관리위원장을 철직시키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태성할머니는 끄떡하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행을 반대하는 놈들의 죄행을 까밝혔습니다.

《당신들이 인민생활에 대하여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그래 인민생활이 어떻단 말이요?

피죽도 없어 굶던 우리는 수령님덕분에 근심걱정없이 잘살고있소. 그래 인민생활이 어쩌구저쩌구 하는 당신들이 조합돼지를 잡아 술추렴했소?!》

태성할머니의 완강한 기세에 질겁한 놈들은 갈팡질팡하다가 회의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어긋나게 행동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합니다.

태성할머니가 보여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믿음은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이어졌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운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있은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었기때문이였습니다.

제7차 세계륙상선수권대회 녀자마라손경기에서 1등을 하고 승리의 단상에 오른 우리 선수는 그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달렸다, 이것이 나의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고 긍지높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살며 투쟁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의 기둥을 안고 살며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이 땅우에 반드시 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며 통일된 조국에서 대를 이어가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받들어모시고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과외읽기

병사들이 준비한 소박한 공연을 보시고

언제인가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병사들이 준비한 소박한 공연을 보게 되시였습니다.

그중에는 특별히 심장을 격동시키는 한편의 합창시와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몸이 펄펄 끓는 쇠물속에 던져지고 시퍼런 작두날밑에 놓인다 해도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감히 침략자들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린다면 지구를 맞구멍 뚫고서라도 그런 원쑤들을 용서치 않겠다는 서리발기상이 넘쳐나는 합창시와 노래였습니다.

공연을 통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높뛰는 심장의 맥박을 들으신듯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격동되신 어조로 저런 말은 최고사령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할것입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고 가슴이 다 후련합니다라고 하시면서 크나큰 용기에 넘치시여 또다시 전선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제10과. 일을 창발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것을 창조하고 그에 의거하여 더욱더 좋은것을 창조하며 이렇게 하여 계속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자면 일을 창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거나 생각해내지 못하는것을 처음으로 내놓거나 이루어놓는것이 창발적으로 일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이 맡아해야 할 일은 여러가지입니다. 머리를 써서 글을 쓰는 일, 손발을 놀리고 힘을 써서 땅을 파거나 고기를 잡는 일,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석탄과 광석을 캐내는 일, 어린이들에게 말과 노래와 춤을 가르쳐주는 일,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일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 다양하기때문에 일을 하는 방법도 한가지만 있을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 조건도 각각 다릅니다.

낮에 해야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밤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땅우에서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바다나 하늘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모든 조건이 다 마련된 유리한 곳에서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는데서 남들이 하는 방법을 덮어놓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을 망칠수 있습니다.

혁명과업수행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자면 남이 하는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그대로 본따지 말고 창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을 창발적으로 해야 한다는것은 결코 제정되여있는 규정과 질서와 규칙을 제멋대로 어기면서 제 하고싶은 방법대로 하라는것이 아닙니다.

창발성은 맡겨진 일을 더 잘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여야 합니다. 일을 망치고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을 주는것은 창발성이 아닙니다.

일을 창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것을 새롭게 대해야 합니다.

창발적으로 한다는것은 새롭게 한다는것입니다. 낡은것에 매여달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해나갈수 없습니다. 항상 머리를 써서 묘리를 찾아내여 현실에 없는 새로운 안과 방법, 창안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혁신이 일어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 언제나 현재의 방법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것을 새로운 견지에서 깊이 사색하고 탐구하여 남이 생각하지 못한것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을 창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현재보다 더 쉽게 일하며 더 나은것, 더 좋은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야 합니다.

현실은 부단히 발전합니다. 생산은 끊임없이 늘어나야 하며 물건의 질과 량도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은 쉬운 일로 만들고 현재의것보다 더 좋은것, 더 능률나는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것을 말해줍니다.

농사를 순수 사람의 손으로 하는것보다 기계로 하고 전기로 하며 화학의 힘으로 하면 일을 쉽게 하면서도 알곡을 비할바없이 많이 낼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힘이 가져다주는 고귀한 열매입니다.

기계공장들에서 선반공이 1대의 기계를 돌려 1시간동안에 10개의 물건을 만들어내던것을 같은 시간에 20개, 30개, 더 나아가서 100개의 물건을 만들수 있게 하면 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의고안명수들의 성과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 언제나 현재의 방법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더 쉬운 방법, 더 좋은 방법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일을 창발적으로 하는 태도는 자기 임무에 대한 주인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주인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며 책임졌다는 생각을 가

지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나갈뿐아니라 창발성을 발휘하여 커다란 성과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주인된 마음씨가 뜨거우면 창발성이 끝없이 흘러나오기때문입니다.

그 어떤 임무를 받았을 때 바로 내가 이 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와 힘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더 잘, 더 훌륭하게 완수하겠는가고 생각을 계속 굴려나갑니다. 이런 방법밖에 더 없을가 하고 자꾸 머리를 쓰고 여러가지 방법들을 받아들여보며 주인노릇을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창안품도 만들고 크고 무겁게 만들었던 도구도 쓰기 편리하게 고치기도 합니다. 또 남들이 못쓴다고 제쳐놓았던 기계도 다시 살려내여 왕왕 돌아가게 합니다.

맡은 일에서 자기가 주인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는 사람은 성과를 이룩하고 찬양을 받았을 때에도 절대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구실을 다했구나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지금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집니다. 더 큰 찬양과 명예를 바래서가 아니라 자기의 작업반, 직장, 나아가서 조국과 인민에게 더 크게 이바지할 마음으로 매우 높은 목표를 제기합니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입니다.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누구나 끊임없이 사색하고 새것을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창발성을 발휘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그에 의거하여 맡은 일을 창발적으로 할 때 더 많이, 더 질좋은것을 생산할수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일을 창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꾸준히 배우고 탐구하며 배운 지식을 실천에 써먹는 능력을 잘 키워나가야 합니다.

제11과. 한생을 깨끗하게

사람은 한생을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생을 깨끗하게 살자면 언제나 청렴하고 결백하여야 합니다.

청렴하고 결백하다는것은 마음과 행동이 깨끗하고 돈과 물건을 탐내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청렴하고 결백한것은 탐욕과 사기협잡, 특전과 특혜, 허례허식과 부화방탕 같은 온갖 깨끗치 못한짓을 할줄 모르는 인간의 고상한 품성입니다.

청렴결백한 품성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에서 나옵니다. 청렴결백성은 량심에 꺼리끼는것이 없이 생활을 깨끗하고 고상하게 하는 품성입니다. 량심을 지닌 사람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고 부당하게 차례지는 모든것을 옳지 않은 일로 여기며 거기에서 수치감과 모욕감, 멸시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량심에 꺼리끼는것이 없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떳떳합니다. 그러나 량심이 깨끗치 못한 사람은 누가 제 속마음과 행실을 들여다보는것 같아 불안해하고 남을 대하기 꺼려합니다.

청렴결백한 사람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친숙해지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깨끗치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곁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쑤들의 꾀임에 말려들어 위험한 구렁텅이에까지 빠질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렴하고 결백한 품성은 참다운 인간에게서만 볼수 있는 고상한 품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청렴결백한 참다운 인간이 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물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을 탐내고 욕심부리는것은 개인리기주의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집단과 다른 사람의 리익을 해치고 제 리속만 채우려는 고약한 심보입니다.

사람이 물욕에 빠지면 사업과 생활에서 원칙을 지킬수도, 바른소리 한마디 할수도 없고 나아가서는 조직과 집단을 팔아먹을수도 있습니다.

청렴결백한 사람은 사리사욕을 반대하고 자기가 일하여 차례지는것만큼 가지고 살며 그 이상의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공동재산을 제것으로 만들어 망탕 써없애는 일이 없고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늘이는것보다 사회공동의 재부를 늘이기 위해 애쓰며 응당하게

차례지는것을 가지고 아끼면서 검박하게 생활합니다. 또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일이 없고 물건을 훔치는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협잡하지 않으며 돈과 물건밖에 모르는 사람을 아주 너절한 인간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특전과 특혜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특전과 특혜를 바란다는것은 남달리 특별한 대우와 혜택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대우와 혜택을 바라는것은 원래 반동적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 그자체가 옳지 못한것입니다. 그것은 특전과 특혜가 자기가 받아야 할 이상의것을 요구하는것이며 다른 사람의 리익에 해를 주기때문입니다. 특전과 특혜를 바라는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리기주의로부터 나온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특별한 대우와 혜택을 바라며 사는것은 기생충의 생활과 다름이 없는것으로서 언제나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청렴결백한 사람들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내세우지 않으며 특별한 대우와 혜택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중이 일할 때는 같이 일하며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대로 자신도 검박하게 생활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습니다.

《빨찌산시절의 나의 개체생활에서 제일 송구스러운 때가 어떤 때였는가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원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표가 나게 섬길 때였다고 대답할것이다.

남들한테 차례지지 않는 특대나 특혜가 차례질 때 나를 사로잡은것은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치부하는 그 어떤 우월감이나 자족감이 아니라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은 미안하고 죄스러운 감정이였다.》

자신을 전사와 인민과 꼭같은 자리에 놓으시고 언제나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는것을 한생의 락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겸허하고 소탈하신 풍모가 그대로 어려있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겸허하신 인민적풍모는 수령님께서 생전에 《작은 가마》를 바라지 말고 반대할데 대하여 하신 말씀에도 그대로 비껴있습니다. 《큰 가마》, 《작은 가마》라는 말은 원래 이전 중국의 쟝지에스(장개석)

《국민당》군대안에서 생겨난것입니다. 그때 《국민당》군대에서는 장교만 되면 일반병사들이 끓여먹는 큰 가마와는 별도로 작은 가마에 별식을 해먹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안에서 《작은 가마》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은 가마》가 있게 되면 별식의 특혜를 받는 특수층이 생기게 되고 어차피 그런 특수층과 《큰 가마》의 대중음식을 먹는 광범한 대원들사이에 금이 가기 마련이며 먹는데서부터 구별을 두고 불평등을 조장하게 되면 누구도 따르지 않게 된다는것을 깊이 헤아리시였던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꼭같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수수한 인민복차림으로 쪽잠과 줴기밥을 달게 여기시며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풍모는 《작은 가마》를 허용하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풍모 그대로이시였습니다.

《작은 가마》 같은것을 둬두면 정말 거기서는 온갖 부정이 생겨납니다. 이런데서는 자본주의사상밖에 나올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마》를 허용하면 당과 대중사이에 금이 가게 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허물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작은 가마》와 같은 특혜, 특전을 바라지도 허용하지도 말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따라배워 어렸을 때부터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나가는 참다운 풍모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청렴결백하게 살자면 이밖에도 온갖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속없이 물자를 망탕 써없애거나 사상적으로 병들어 들떠돌아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못된짓을 하는것 그리고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고 날라리풍에 물젖어 돌아치는것은 다 흐리터분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깨끗치 못한 생활에 절대로 말려들지 말아야 하며 한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

《사람이 돈이나 물건에 포로되면 당도 수령도 조국도 인민도 안중에 없고 나중에는 부모처자조차도 모르는 인간추물이 되고만다는것이 80풍상의 인생을 총화하면서 내가 후대들에게 하고싶은 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물욕은 사상적변질의 첫걸음으로 된다.》

《사람이 돈에 환장하게 되면 육체는 살아있어도 정신은 죽은것이나 갈다.》

제12과. 비판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비판은 언제나 솔직하고 원칙적이며 동지적이여야 한다.》

우리는 생활과정에 나타난 잘못을 놓고 자기비판도 하고 동무들에게서 비판을 받기도 하며 동무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비판을 주고받는데서도 례절을 잘 지켜야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참다운 혁명가의 품성을 하나하나 키워나갈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직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규률있고 힘있는 조직으로 될수 있습니다.

비판례절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자기비판을 솔직하게 하는것입니다.

천금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동지의 사랑이며 이 세상을 다 준대도 저버릴수 없는것이 동지들의 믿음입니다.

동지들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앞에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내놓고 허심하게 비판하여야 옳은 례절로 됩니다.

우선 학습과 생활에서 나타난 잘못을 동무들이 지적하여주기 전에 자기스스로 옳게 찾을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항상 량심의 거울앞에 세워놓고 행동의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그 거울에 비추어보아야 자기의 잘못을 제때에 밝혀내는《눈》을 가질수 있게 됩니다. 이런《눈》을 가져야 작은 잘못도 큰것으로 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눈》을 가지지 못하면 남들이 크게 보는 잘못도 별치 않은것으로 보이며 뜨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량심적으로 자기의 학습과 생활에서 나타난 잘못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학습과 생활에서 나타난 결함을 감추지 말고 툭 털어놓아야 합니다.

무슨 잘못이든지 툭 털어놓고 비판하여야 조직과 동무들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자기의 마음도 편하게 됩니다.

조직과 동무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미 알려진것만 비판하면서 자기만 알고있는 잘못을 덮어두는것은 량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상처안의 고름을 그대로 남겨놓는것과 같은것입니다.

상처안의 고름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퍼져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것처럼 덮어두었던 잘못은 더 큰 결함으로 번져져 비판으로는 고치기 힘든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과 동무들에게 속을 주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거나 속이는것은 조직과 동무들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것으로 됩니다.

어머니가 흠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듯이 조직과 동무들은 잘못이 있는 동무에 대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범한 잘못을 제때에 속시원히 털어놓고 그것을 조직과 동무들의 방조를 받으며 빨리 고쳐야 합니다.

비판례절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호상비판을 제때에 진심으로 하는것과 함께 비판받은 동무를 잘 도와주는것입니다.

동무는 혁명하는 길에서 뜻과 마음, 생사고락을 같이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동무의 잘못한 일을 두고 가슴아파하며 그것을 고치도록 비판도 하는것입니다.

우선 동무의 잘못을 제때에 비판하여야 합니다.

동무를 생각해주는것처럼 하면서 그의 잘못을 어루만지며 싸고도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동무의 잘못을 비판하면 그와의 사이에 금이 가지 않겠는가 하면서 주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잘못을 보고도 비판하지 않는것은 동무를 구렁텅이에 빠지라고 내버려두는것과 같습니다.

또한 비판을 진심으로 하여야 합니다.

잘못을 비판한다고 하여 동무의 잘못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동무의 잘못을 작은것에 이르기까지 다 수첩에 적어놓고있다가 어디보자는 식으로 덧붙이는것은 오히려 반감을 살수 있게 합니다.

비판은 언제나 진실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되여야 동무들사이의 단결과 화목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비판받은 동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해주어야 합니다.

비판받은 동무가 고민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따뜻이 대해주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잘못을 빨리 고치고 함께 일을 더 잘해나갈수 있습니다.

비판례절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동무들의 비판을 허심하게 받아들이는것입니다.

우선 동무들의 비판을 고맙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 혼자서 찾고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동무들의 비판을 받아보아야 자기의 잘못이 무엇이며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였으며 고치자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를 잘 알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비판받는것은 매일 세수하는것과 같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비판받는것을 혁명의 길을 영원히 걷기 위해 보약을 먹는것과 같은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잘못을 고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말로는 접수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것은 동무들의 비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고칠 방도를 늘 생각하면서 학습과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례절을 잘 지킴으로써 비판이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동무의 잘못을 고쳐주는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하며 비판을 통하여 더 억세게 단련되여야 합니다.

제13과. 동지에 대한 믿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동지적관계는 동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굳건히 맺어집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 새 세대들입니다.

혁명의 한길에서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우리들은 다같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나어린 혁명동지들입니다.

혁명동지들사이에는 확고한 믿음이 오고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여 동지적관계가 튼튼하여집니다.

동지적관계에서 믿음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사람들사이의 정을 두터이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어준다는것을 느낄 때 믿어주는 그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정을 느끼고 그를 따르게 되며 뜨거운 정으로 믿음에 보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에 가까와지고 튼튼히 결합되게 됩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꾀인다 해도 진심으로 뜨거운 정을 느끼지도 나누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확고히 믿는데 대해서는 감사의 정을 느끼고 믿음을 준 사람을 따르게 되며 진정으로 자신의 정도 쏟아붓게 됩니다.

사람들사이의 진정한 믿음은 그들이 지니고있는 마음, 사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상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믿음과도 대비할수 없는 뜨거운 정을 낳습니다.

우리는 풀기 어려운 수학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을 때 수학을 잘 아는 동무의 방조를 받을것을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간혹 공동로동을 하면서 무거운 돌을 굴리지 못해 맡은 과제를 하기 어려울 때 힘센 동무의 힘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과 지혜를 믿는 이러한 믿음도 동무들사이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 정을 두터이하는데서 일정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사상에 대한 믿음과는 비교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상, 마음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혁명동지들사이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속에 뜨거운 정이 오가며 뜨거운 정이 오가는 속에 믿음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혁명동지들사이의 믿음은 혁명의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나가는 사람들의 마음, 사상에 대한 믿음이기때문에 그 어떤 믿음보다 강합니다.

혁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상을 발동하여 수행합니다. 혁명동지들사이에 사상과 마음이 일치하면 정도 더욱 두터워지고 정이 두터우면 서로의 믿음도 그만큼 강해집니다.

동지들사이에 믿음이 강해지면 사상과 마음도 더욱 굳세여지고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도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혁명동지들사이에 믿음이 강해야 혁명의 승리를 적극 추동할수 있습니다.

혁명동지들사이의 믿음은 집단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게 합니다.

집단의 통일과 단결은 거기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루어지게 되며 그것이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것은 어떤 인간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는데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의 통일단결은 서로 굳게 믿는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습니다.

혁명동지들사이의 믿음은 동지를 혁명의 길에서 충실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줍니다.

혁명은 혼자서 할수 없습니다.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혁명동지들사이에 확고한 믿음이 오갈 때 굳게 뭉쳐 모두가 조직과 집단, 혁명대오의 한 성원이 될수 있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습니다.

동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혁명조직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것은 물론 혁명조직의 그 어떤 과업이나 분공도 받을수 없고 수행할수도 없습니다.

동지들의 믿음을 받는 사람이라야 혁명조직은 그를 믿고 그에게 더 어려운 과업과 분공을 맡기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받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큰 힘으로 되여 맡은 과업과 분공을 더 잘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지들의 믿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조직으로부터 그 어떤 과업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처럼 서럽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혁명하는 사람은 동지들의 믿음을 받는데서 사는 보람을 느끼고 혁명에 끝까지 충실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보여주신 동지에 대한 믿음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억울하게 《민생단》혐의를 받은 100여명의 대원들앞에서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태워버리고 그들모두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받아들인 이야기,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을 한품에 안아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신 이야기는 동지에 대한 믿음의 숭고한 모범으로 길이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소년단원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을 맞으며 이름없는 두메산골 작은 분교로부터 동서해의 섬초소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로동자, 농민, 군인들의 아들딸들인 우리 소년단원들을 경축행사에 불러주시고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습니다. 그 사랑,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 소년단원들도 앞날의 주인공으로, 혁명가로 자라나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참된 혁명전사로, 동지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는 훌륭한 혁명가로 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하여야 믿음이 가며 믿음이 가야 동지적단합을 이룩할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동지적관계가 이루어진다.》

《과업은 믿음의 표시이다.》

제14과. 전사의 자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참다운 충신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자신을 수령의 전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속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수령의 전사는 수령에게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수령의 뜻을 받들어 견결히 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수령의 전사는 자기 수령을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까지 믿고 따르며 수령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것을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로 여깁니다.

수령의 전사는 언제나 수령의 영상을 마음속에 안고 수령에게 충실합니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인 김철진, 김경철이 바로 그런 전사들이였습니다.

어느날 김철진, 김경철은 지휘관이 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마선을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모진 풍랑에 맞다들게 되였습니다.

바다에 나온지 한시간쯤 되여 하늘이 갑자기 재빛으로 변하고 바다가 무섭게 설레이더니 산악같은 파도가 두 전사가 탄 전마선우를 덮씌웠습니다. 두 전사는 사나운 파도와 싸우다가 그만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들이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는 이미 약냄새가 확 풍기는 병원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김철진은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벽부터 올려다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벽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뜸 자기들이 원쑤놈들의 소굴에 들어와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군사복무의 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고향집과 학교와 병실 그 어디에서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과 보살피심을 몸가까이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져있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의 해빛이 비치는 곳이 곧 자기의 정다운 집이였고 안겨사는 품이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슴속에 드놀지 않는 신념으로 굳게 다져진것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지 않는것을 보는 순간 자기들이 적의 소굴에 와있다는것을 인차 알아차리게 되였던것입니다.

수령의 전사는 수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을 도리로 여깁니다.

두 전사가 정신을 차리자 적들은 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놈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얼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였습니다.

전사들은 어리석게 노는 놈들과는 말도 하기 싫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놈들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존함을 존칭사를 쓰지 않고 부르는데 대해서는 참고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두 전사는 격분을 누를길 없어 추상같이 웨쳤습니다.

《온 세상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과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존칭사를 붙여 정중히 부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는 한마디의 말도 듣지 못할것이다.》

그들이 어찌나 단호하게 웨쳤던지 놈들은 기가 죽고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놈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존함을 존칭사를 붙여 정중히 부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령장을 모신 전사의 든든한 배짱앞에서는 그 어떤 간악한 원쑤도 맥을 추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습니다.

수령의 전사는 또한 수령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 자세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변함없이 간직합니다.

살아도 수령의 품속에서 살고 죽어서도 그 품속에서 영생하려는것이 전사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는것이 전사의 자세입니다.

원쑤놈들은 김철진, 김경철에게 무시무시한 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금시계와 많은 돈을 내놓고 자가용승용차도 주겠다고 하면서 남쪽에 남으라고 구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전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려는 곳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품이다. 우리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는 살수 있지만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

우리를 돌려보내라.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는것이 확고한 결심이다.》

대답은 명백하고 태도도 당당했습니다.

적들은 마침내 굴복하고말았습니다.

김철진, 김경철은 끝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쑤놈들의 소굴에 홀로 있으면서도 전사의 자세를 꿋꿋이 지켜낸 김철진, 김경철에게서 우리는 수령의 전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전사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며 싸울 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참된 전사로 한생을 긍지높이 살수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혁명전사는 언제나 자기 수령의 마음속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다 한모습이고 순탄한 길을 걸을 때도 시련에 찬 길을 걸을 때도 언제나 한모습인 그런 충신이 필요하다.》

《시국이 좋을 때에는 돋보이지 않아도 시국이 어려울 때 돋보이는 사람이 충신이다.》

제15과. 인정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인정미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며 정을 함께 나눌줄 아는 미덕입니다. 인정미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생활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저절로 끌리고 무슨 일이든지 숨김없이 마음터놓고 의논하고싶은 동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동무들은 례외없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뜨거운 동무들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에 벌과 나비가 날아들듯이 풍부한 인정미를 가진 인간은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게 됩니다.

향기롭지 못한 꽃에는 벌과 나비가 잘 날아들지 않습니다. 그런 꽃에는 설사 벌과 나비가 앉는다 해도 인차 날아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너그럽지 못하고 딱딱하여 인정미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잘 따르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인간의 향기가 바로 인정미입니다.

인정이라는것이 사람에 대한 정을 의미하기때문에 인정미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남을 대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라고 달리 말할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미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서로 동정하기도 하고 아끼고 사랑하기도 하는 숭고한 감정을 지니게 됩니다.

인정미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친근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인정미는 사람들을 대할 때 풍기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향기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끌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쉽게 친숙하고 허물없이 어울리기도 하며 그들의 마음속깊이 들어갈수 있게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미가 없으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정이 오갈수 없고 서로 친숙과 화목이 보장될수 없습니다. 정이 통하지 않으면 자연히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금이 가게 됩니다.

참다운 인정미는 참된 혁명가들만이 지닐수 있습니다.

혁명가들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귀중히 여길 때에라야 사람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는 뜨거운 인

정미가 넘칠수 있습니다. 인정미를 못가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줄 모르므로 참된 혁명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혁명가들은 인정미를 귀중히 여기지만 서푼짜리 《인정미》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정미에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인정미가 있는 반면에 인정미로 가장한 서푼짜리 《인정미》도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은《인정미》는 가식에 불과한것입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체 하면서 속으로는 딴꿈을 꾸는 등치고 간빼먹는 식의《인정미》는 교활한 원쑤놈들에게서 흔히 찾아볼수 있습니다.

혁명가들은 이러한 교활한《인정미》를 제때에 식별하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활한《인정미》에 끌려 자기의 혁명적지조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참다운 인정미를 지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무한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귀중한것이 많습니다. 현대적인 공장들과 발전소들, 화려한 살림집들, 능률높은 기계들 그리고 우리의 학교건물과 비품, 이 모든것은 다 우리 인민이 품들여 만든것이고 우리의 손때묻은 귀중한 재산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아무리 귀중하다 하여도 그것은 다 사람이 만든것이고 또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것이 사람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이 사람이라는것을 알아야 사람을 사랑할수 있으며 사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인정미도 가질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학교, 한학급에서 공부하는 자기 동무들과 언제나 부드럽고 친근하게 말하며 그들이 안타까와하는 일을 함께 의논도 하고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함이 나타나면 따뜻하고 부드럽게 타일러주어야 합니다.

자기만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동무의 아픔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것은 다 인정미가 없는 그릇된 행동입니다.

참다운 인정미를 지니기 위하여서는 또한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소유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감정이 없고 정서가 메마르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슬퍼하는지, 안타까와하는지 그의 마음속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있게 대할수 없을뿐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는 친근한 사람으로 될수 없습니다.

참된 혁명가는 혁명동지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줄줄 알며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그에 깊이 동정하고 함께 슬퍼할줄 아는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도 혁명동지를 위하여 참다운 인정미를 꽃피운 항일혁명투사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하며 혁명소설을 비롯한 문예작품들을 많이 읽고 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감정정서를 더욱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모두 참다운 인정미를 지님으로써 혁명가의 고상한 도덕품성을 훌륭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정을 정으로 보답하는것은 인간의 미덕이다.》

과외읽기

꽃과 나비

어느해 여름이였습니다.

하루해가 기울도록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호수가에 잠시 머무르시였습니다.

호수가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꽃에는 벌과 나비가 많이 모여들고 어떤 꽃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꽃들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향기로운 꽃들 같지만 이렇게 벌과 나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어느것이 향기있는 꽃이고 어느것이 향기가 없는 꽃인가를 쉽게 가려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리치는 인간생활에도 그대로 작용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꽃은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가 찾아들고 일군은 인정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시면서 일군의 향기는 곧 인간성과 인정미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향기가 없는 꽃은 종이꽃이나 같다면 인간성과 인정미가 없는 일군은 가짜 일군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하나의 자그마한 자연현상을 놓고 생활의 리치와 사업의 리치를 생동하게 깨우쳐주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을 일군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면서 일군들은 인정미를 지니는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혁명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풍모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제16과. 동방례의지국의 자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동방례의지국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 나라는 오래전부터《해솟는 밝은 아침의 나라》라는 자랑과 함께 《동방례의지국》이라는 자랑을 가지고있습니다.

《동방례의지국》이란 말은 지구의 동쪽에 있는 례의도덕이 밝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 나라는 《동방례의지국》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질만큼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전부터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아름다운 도덕풍습을 꽃피우며 근면하고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남달리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와 이웃간의 도덕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인민은 재물과 권력앞에서 굽실거리는것을 수치로 여겼으며 이웃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 례절과 의리가 매우 밝고 마음씨가 부드럽고 고왔습니다. 우리 나라의 어느 동네, 어느 마을을 가보아도 이웃사이에 의좋게 지내며 한가정처럼 오붓이 살아가는 단란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속에는 웃사람을 존경하고 아래사람을 사랑하며 도와주는 아름다운 기풍이 지배하였으며 그것이 하나의 민족적풍습으로 굳어졌습니다.

우리 인민의 인사례법과 식사례절을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절이 기본인사법인데 인사대상과 장소에 따라 절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는 머리를 가볍게 숙여 인사를 나누었지만 로인이나 웃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존경의 뜻을 담아 공손한 말로 안부를 물으면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습니다.

웃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그들에게 자리를 권하는것과 같은 것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하나의 풍습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웃사람도 아래사람을 례절있게 대하고 아래사람들의 인사에 반드시 답례를 하는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식사를 나눌 때에도 례절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밥을 풀 때 로인이나 웃사람의 밥을 먼저 담았으며 식사도 로인이나 웃사람에게 먼저 권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특히 손님을 례절바르게 대하고 성의를 다하여 대접하는 좋은 풍속을 가지고있습니다.

손님과 식사를 나눌 때에는 주인이 먼저 수저를 들고 손님에게 식사를 권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손님쪽에 놓아주었으며 손님이 식사를 다하고 수저를 놓은 다음에야 주인도 수저를 놓군 하였습니다.

비록 낯모르는 사람이나 아래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이 식사를 하면 누워있다가도 일어나 앉는것을 례의로 여겼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 마을이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재우며 식사를 시키면서 대접을 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전려행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우리 인민은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훔치는것을 큰 죄악으로 알았고 가장 너절한것으로 여겼습니다.

례절이 밝은 우리 인민의 풍속은 언어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웃사람에게는 존경의 뜻을 담아 말하였고 같은 나이 사람들이나 아래사람들에게도 친절하면서도 존중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도덕은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 칭찬과 부러움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19세기말 우리 나라를 려행한 어느 한 나라의 지리학자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도덕에 대한 자기의 인상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많이 려행하였다. … 그러나 나는 조선에서와 같이 이렇게도 훌륭한 접대를 받아본적이 없다. 조선사람들은 려행자들이 머무는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친절하게 접대하여줌으로써 려행자들을 반하게 하였다. 세상에 이렇게도 성격상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특성을 가진 인민을 발견하기는 힘들것이다.》

온 세상사람들이 찬양하여마지 않는《동방례의지국》에서 사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긍지는 참으로 큽니다.

《동방례의지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풍모는 선군시대에 와서 최고높이에 이르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뭉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충정을 다하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고있습니다.

또한 혁명선배들과 스승을 존경하고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성심성의로 돌봐주는 미덕이 날을 따라 더욱 꽃펴나고있습니다.

세상에 나라와 민족은 많아도 이렇듯 의리에 충실하고 례절밝은 인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어제날에도《동방례의지국》으로 자랑떨치고 오늘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그 자랑을 더해가는 긍지높은 인민입니다.

우리들은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동방례의지국》의 자랑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제17과. 주장할 때의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말도 겸손하고 례절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학습과 생활과정에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장이란 집단과 동무들앞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내세우는것을 말합니다.

주장할 때 례절을 잘 지켜야 집단과 동무들사이에 화목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주장할 때 례절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하는것입니다.

주장할 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것은 다른 동무의 생각이나 의견을 귀중히 여기고 받아들인다는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이 제일인것처럼 다른 동무의 생각이나 의견을 덮어놓고 누르면서 다른 동무를 깔보는것은 례절에 심히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주장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여야 모든 동무들이 문제토의에 적극 참가하여 좋은 생각이나 의견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동무의 주장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다른 동무의 주장을 귀담아듣는것은 그 동무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고 문제토의에 대한 성실성의 표시입니다.

다른 동무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지 못하다고 해도 참을성있게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다른 동무가 주장하는것을 듣지 않고있다가 나중에 다시 물어보는것은 례절이 없는 표현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망신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동무의 주장을 끝까지 듣기 전에 알만 하다고 하면서 그의 주장을 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무의 주장을 무턱대고 딴주장으로 공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더우기 다른 동무의 주장을 덮어놓고 내려누르면서 묵살하는것은 동무를 깔보는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라는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장할 때 례절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주장을 겸손하게 하는것입니다.

주장을 겸손하게 한다는것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동무를 높이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내놓는다는것을 말합니다.

주장을 겸손하게 하여야 동무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쉽게 전달할수 있고 그들의 공감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주장을 부드럽고 조리있게 하여야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듯이 주장을 례절바르게 하여야 상대방의 존경을 받을수 있습니다.

말소리를 높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조용하고 조리있는 주장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주장은 누구나 알아들을수 있게 맞춤한 속도로 명백하고도 짧게 하여야 합니다. 너무 빨리 말하거나 오래동안 말하는것은 다른 동무들에게 불편과 지루감을 줍니다.

또한 주장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동무들을 내세우는 방향에서 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또는《저의 생각에는 …》라고 하여 자기의 의견이 제일 좋은것이 못되며 다른 동무들의 의견이 더 좋을수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것이 겸손한 주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중에 누가 자기의 말을 중둥무이하고 제 주장을 내놓을 때에조차도 기분나빠하지 말고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인내성있게 듣는것이 좋습니다.

우리모두 주장할 때의 례절을 바로 알고 집단과 동무들사이에 화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사리에 맞고 론리에 맞으면 진짜소리이고 맞지 않으면 가짜소리이다.》

제18과. 모기장을 치자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무서운 병을 퍼뜨려 사람을 앓게하는 매우 해로운 곤충입니다.

모기와 마찬가지로 나쁜 사상도 사람의 머리에 침습하면 건전하던 사상을 병들게 합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병들게 만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독소가 절대로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자면 그 독소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는 자본주의사상과 미국 식 생활양식, 생활풍조로 가득찬 가장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문화입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독소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면 사람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사회주의를 떠받드는 기둥이고 지탱점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도 없고 지켜낼수도 없습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진정한 인민의 사회인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헐뜯고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를 찬양하는 록화물, 록음카세트, 여러가지 소책자들을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만약 허위와 기만, 모략으로 가득찬 적들의 선전물들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면 사람들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마비되게 됩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독소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면 사회주의대가정의 통일단결이 파괴되게 됩니다.

통일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명입니다.

미제원쑤놈들과 반동들은 당과 군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통일단결을 해치려고 악랄한 비방중상에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원쑤놈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지 못하면 우리의 통일단결에 틈이 생기고 그것이 점차 커져서 사회주의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독소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면 적들이 발붙일 틈을 주게 됩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지 못하면 그 독소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불평불만을 퍼뜨리는 나쁜 놈들이 생겨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이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려고 발악하게 됩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독소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면 고상한 사회주의생활양식이 파괴되고 사회에 무질서가 조성되게 됩니다.

부르죠아생활양식 특히 미국 식 생활양식은 온갖 불량배짓, 추잡한 짓을 일삼는 가장 반동적인 생활양식입니다.

독이 센 병균일수록 전염력이 강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식 생활양식, 생활풍조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헤여나지 못합니다.

적들이 퍼뜨리는 선전물들에 귀를 기울인 탓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이 말려들기 시작하면 점차 퍼져 온 사회의 건전한 생활양식, 생활기풍이 파괴되고 무질서가 조성되며 나중에는 사회주의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참으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는 모기가 모기장을 뚫고 들어가려고 무진 애를 쓰는것과도 같습니다.

모기장에 구멍이 뚫리면 모기가 새여들듯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독소도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독소의 침습을 막는 우리의 모기장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직생활과 혁명적규률을 강화하는것이며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양식을 반대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것입니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잡사상이나 나쁜 생활풍조가 범접하지 못합니다.

미제원쑤놈들과 온갖 반동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책동하여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 신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원쑤놈들이 내돌리는 색다른 록화물이나 록음카세트, 출판선전물 그리고 미신자료에 눈도 돌리지 않으며 그것을 퍼뜨리는 자들과 견결히 투쟁합니다.

조직생활이 강하고 혁명적규률이 철저히 세워진 곳으로도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독소가 침습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자본주의사상과 미국 식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혀를 날름거리며 돌아치듯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독소가 침습하려고 기를 쓰는 때에 조직생활과 규률을 싫어하면서 안일하게 살거나 돈과 물건에만 눈이 어두워 돌아치는 사람은 틀림없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의 모기한테 물리게 됩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독소의 침습을 막자면 언제나 생활을 검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먹자판을 벌리기 좋아하는 현상, 손금을 보면서 미신행위를 퍼뜨리는 현상, 추잡한 곡이나 화면에 맞추어 해괴망측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현상, 돈이나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하는 현상, 돈이나 물건에 환장이 되여 돌아치는 현상, 우리 식이 아닌 옷차림과 몸단장을 하기 좋아하는 현상 등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흐리게 하고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병들게 하는 매우 위험한 생활풍조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상적변질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생활을 검박하게 하는데 습관되여야 합니다.

미제원쑤놈들과 온갖 반동들이 퍼뜨리는 사상문화적독소의 침습을 막기 위한 모기장을 든든히 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독소가 우리 내부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합니다.

과외읽기

미제원쑤놈들의 비렬한 심리모략전

미제원쑤놈들은 지난 세기 80년대에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방송, 영화, 출판물, 록화테프 등을 리용하여 비렬한 심리모략전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미제원쑤놈들의 심리모략전을 막지 못한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은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고말았습니다.

이라크도 역시 미제원쑤놈들의 심리모략전을 막지 못하여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말았습니다.

미제원쑤놈들은 지금 제놈들이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한 정치제도를 헐뜯고 민족끼리 싸움을 하게 하며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거짓말방송을 하루종일 미친듯이 불어대고있습니다.

또한 썩어빠진 미국 식 생활양식을 주입시켜 사람들의 정신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하고있습니다.

또한 제놈들의 군사적위력이 대단한것처럼 과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전쟁공포를 조장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사람들을 몇푼의 돈으로 매수하여 군사비밀을 알아내거나 제놈

들의 끄나불로 리용하려고 비렬한 수법을 쓰고있습니다.

또한 《원조》를 미끼로 제놈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하고 반미의식을 마비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미제원쑤놈들이 그 어떤 심리모략전을 악랄하게 감행한다고 하여도 모기장을 든든히 치고있는 우리 나라는 끄떡없습니다.

제19과. 일이 곱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사람은 얼굴이 고운것이 아니라 일이 곱다고 하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얼굴이 고운것이 아니라 일이 곱다는것은 사람의 아름다움은 얼굴의 생김새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할수 없습니다.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지고 인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사상정신적으로 고상하지 못한 사람은 외모가 아무리 곱다고 해도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생김새와 몸매, 차림새는 속마음과 어울릴 때 참말로 아름다운것으로 됩니다.

로동에 성실한 사람이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명예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나라를 위한 일, 남을 위한 일에 성실한 땀을 바치고 깨끗한 량심을 조국땅에 묻어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인민들은 얼굴고운 사람보다 누가 보건말건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비록 얼굴과 몸매가 곱다 하여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 투신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면서 먹을알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인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시였습니다.

주체58(1969)년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안주시 원풍협동농장 3작업반 목화밭을 돌아보시였습니다.

하얀 꽃이 구름처럼 피여있는 목화밭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문득 동행한 일군들에게 어떠한 꽃들을 제일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들은 곱고 향기로운 꽃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실례로 장미꽃을 들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사람들은 물론 곱고 향기로운 꽃을 좋아한다, 장미꽃이 곱고 향기롭기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미꽃보다도 더 고운 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목화꽃이다, 나는 목화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꽃병에 꽂힌 장미꽃을 바라보시며 한 일군에게 뜻깊은 물음을 제기하시였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가운데서 첫째 부류의 사람은 얼굴도 곱고 향수냄새도 풍기면서 다니지만 일에는 성실하지 못하고 자기의 리속만 채우려는 사람이고 둘째 부류의 사람은 얼굴은 곱지 못하고 향수냄새도 풍길줄은 모르지만 누가 보건말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어느 사람이 고운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은 둘째 부류의 사람이 곱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옳다고 하시며 개인을 위하여 서로 물고 뜯는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첫째 부류의 사람이 곱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투쟁하는 우리 사회에서 고운 사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람치고 고운 용모와 향수냄새를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그러나 그 고운 용모와 향수냄새가 인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는 미운것으로, 역겨운것으로 된다고, 그렇기때문에 속담에 사람이 고운것이 아니라 일이 곱다는 말이 있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두 부류의 사람을 꽃에 비유하면 첫째 부류의 사람은 줄장미와 같고 둘째 부류의 사람은 목화꽃과 같다고, 줄장미는 꽃이 피였다진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는것이 없지만 목화꽃은 향기롭고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그대신 훌륭한 솜을 준다고 하시면서 목화꽃이 큰일을 하면서도 제 모습을 드러낼줄 모르는것이기때문에 더 정이 가고 사랑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사람을 위해 큰일을 하고도 제 자랑할줄 모르는 목화꽃!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소박한 목화꽃을 아름답게 여기신것은 근로하는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때문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목화꽃처럼 소박하고 성실한 인간으로 키우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우리 나라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자라났습니다.

아름다운 인간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는 우리 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들의 대화원으로 되였습니다.

이 대화원속에서도 어려운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당과 조국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면서 고상하고 례절바른 도덕품성을 지니고 사회와 인민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하기때문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인민들의 아낌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인간이라면 놀고먹으며 건달을 부리는 착취계급은 인민대중의 증오와 저주를 받는 가장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그것은 이놈들이 인민대중을 온갖 불행에 빠뜨리는 놈들이기때문입니다.

착취계급은 인민대중을 가난과 빈궁에로 몰아갑니다.

옛날부터 《부자 한놈에 열동네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착취계급은 인민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부자가 되고 인민대중은 착취계급에게 빼앗기여 가난뱅이가 됩니다.

착취자에게는 초보적인 량심도 도덕도 없습니다. 이자들은 손가락하나 까딱하지 않고 놀고먹는것을 수치로 여기는것이 아니라 응당한것으로 여깁니다. 이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을 어떻게 하나 더 악착하게 더 많이 착취하여 더 잘살아보자고 못하는짓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놈들을 호강시켜주는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는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인민대중의 증오와 저주를 받는 지주, 자본가와 같은 더러운 인간들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자들이 없어져야 인간세상의 수치가 없어지고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는 인민을 착취하여 놀고먹는 지주, 자본가와 같은 너절한 인간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어려서부터 일하기를 즐겨하는 버릇을 키워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다운 일군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실한 로동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명언

《참다운 인생은 로동으로 시작되고 로동속에서 빛난다.》

제20과. 하나의 대가정

대가정이란 말그대로 많은 식구를 가진 큰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곧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형님, 누나, 동생들이 있는 화목한 자기 집을 생각합니다.

하나의 대가정은 바로 화목한 우리 집과 같은 우리의 사회주의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그 자식들이 있는것처럼 우리의 대가정, 우리 사회에도 어버이가 계시고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우리의 대가정은 가장 위대하고 자애로우며 인자하신 어버이를 모시고 전체 인민이 그분들의 자식이 되여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화목하고 단합된 대가정입니다.

우리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여 우리 민족을 죽음의 나락에서 건져주시였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을 세상이 다 아는 부강한 나라로 일떠세워주신 고마운분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인민을 삼키려고 날뛸 때에도 놈들에게 된벼락을 안기시여 조국을 구원해주시였으며 조국땅우에 더욱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을 세워주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민족의 은인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하늘같이 떠받들고 모셔왔습니다.

그러던 우리 인민이 주체83(1994)년 7월 8일, 뜻밖에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잃는 절통한 슬픔을 당하게 되였습니다.

지구가 깨졌다는것에도 비길수 없는 뜻밖의 소식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너무나도 큰 손실앞에서 모두가 몸부림치고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억수로 쏟아붓는 소나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자애로운 어버이를 부르는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웨침과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삼천리강토를 진감시켰습니다.

가슴 찢기는듯 한 아픔을 안고 밤낮이 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자그마한 꾸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모를 잃은것보다도 더 가슴아파하고 절통해하는 모습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꼭같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계셨기에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한사람같이 일떠섰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정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도 쏴올리고 핵무기도 만들어내는 군사강국이 되였으며 세상에 보란듯이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려고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웅장화려한 거리들과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워주시였습니다. 인민을 찾아 수천수만리

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가정에 들리시여 밥가마도 열어보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태여날 아기들의 이름도 지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따르던 우리 인민이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일찌기 대원수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을 당하게 되였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자애로운 어버이를 목메여 부르고 또 부르며 피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장군님! 사랑하는 인민을 두고 어디로 가신단말입니까. 어버이장군님, 어서 일어나십시오.》라고 웨치며 가슴을 치고 또 치던 우리 군대와 인민이였습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한 우리의 어버이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이렇게 노래부르고있습니다.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
비날론폭포소식 아뢰면 또 오실가
장군님 목메여 부르는 온 나라 아들딸들
오늘도 사무친 그리움 아 끝이 없네

황홀한 새 거리를 펼치면 또 뵈올가
최첨단 새 공장을 세우면 또 뵈올가
장군님 모실 날 기다려 불타던 천만심장
오늘도 간절한 그리움 아 끝이 없네

영원한 그리움에 불타는 우리 심장
어버이유훈지켜 당중앙 받들리라
장군님 천만년 모시고 충정을 바칠 맹세
오늘도 순결한 그리움 아 끝이 없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령도자와 인민, 인민과 령도자가 한집안식구들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이 하나로 이어진 화목한 대가정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령도자와 전사의 관계를 넘어서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로 되여있습니다.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우리 인민은 령도자와 하나의 생각, 하나의 호흡,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수령과 인민과의 관계

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고 뗄래야 뗄수 없는 친혈육의 관계로, 하나의 대가정의 관계로 되여있습니다.

이 하나의 대가정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가풍이 있습니다.

가풍이란 한집안에 전해내려오는 범절이나 풍습을 말합니다.

대가정에 차넘치는 가풍은 수령에게 바치는 인민들의 충실성입니다.

충실성은 혁명전사들이 어버이수령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도덕품성입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모든것을 다 바칩니다.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그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생겨난것이 아닙니다.

또 그 어떤 보수나 대가를 바라고 바치는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우리 사회 대가정의 충실성의 가풍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흘러넘치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뜨거운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것이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싹틔워주시고 키워주신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바치는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참으로 깨끗하고 열렬한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사회에 차넘치는 범절로, 풍습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가정에 흐르는 충실성의 가풍은 전체 인민을 친혈육과 같이 화목하고 친근하게 결합시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한집안식구처럼 다정하게 생활하는 모습은 우리의 대가정의 화목과 단결의 향기를 더욱 짙게 해줍니다.

우리모두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더 높이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과외읽기

섬초소에서 찍으신 기념사진

주체86(1997)년 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륙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작은 섬초소를 찾아주시였습니다.

《어버이장군님!》

《최고사령관동지!》

흘러내리는 눈물도 씻을념을 않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장군님의 품에 달려가 얼굴을 묻는 초병들!

다들 잘 있었소? 동무들을 보고싶어서 찾아왔소라고 하시며 사랑하는 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이 안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섬에서 수고가 많았겠다고, 앓는 사람은 없는가, 고향의 부모형제들한테서 편지는 자주 오는가고 다정히 물으시며 초소들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이날은 보기 드문 무더운 날이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는 조금도 아랑곳 않으시고 섬방어대초병들의 생활과 전투임무수행정형 그리고 군인가족들의 살림살이와 자녀들의 교육교양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일일이 대책을 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섬방어대를 떠나실 시간이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섬방어대군인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기념사진을 찍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군인들과 그들의 안해들과 부모들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가시키기 위하여 세심한 조직사업까지 하여주시였습니다.

이리하여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섬방어대군인들과 가족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는 력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섬초소마다에서는 장령, 군관들이 전사들을 대신하여 총을 메고 경계근무를 서는 전설같은 희한한 광경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주체101(2012)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파도사나운 풍랑길을 헤치시며 찾아오시였던 그날의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멀고 험한 초도방어대를 찾아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초도방어대에 시찰의 자욱을 옮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섬초소의 군인들과 가족들은 폭풍같은 《만세!》를 부르며 두볼을 뜨겁게 적시였습니다.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감격에 겨워 두볼을 적시고있는 초도방어대의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병영밖에서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만세!》를 부르는 군인가족들도 곁으로 불러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습니다.

정녕 한명의 전사라도 빠질세라 그들을 대신하여 장령, 군관들이 경계근무를 서게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 그대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에 안겨 영광의 시각을 보내는 군인들과 가족들은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독차지한듯싶어 줄줄이 쏟아져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도 섬방어대군인들과 가족들은 뜻깊은 그 나날들에 어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을 볼 때마다 감격에 눈물지으며 심장으로 웨칩니다.

《우리 비록 뭍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섬에 살지만 어버이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에 누구보다 가까이 안겨사는 장군님의 한식솔이다.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섬과 뭍이 따로 없고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내 조국에는 절해고도란 영원히 있을수 없다!》

제21과. 손님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특히 손님을 례절바르게 대하고 성의를 다하여 대접하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도 있고 또 손님으로 다른 집에 갈 때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손님을 맞이하였을 때와 손님으로 갔을 때의 례절을 잘 지켰습니다.

손님례절을 잘 지켜야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풍습을 더욱 빛내일수 있으며 이웃들사이에 서로의 정을 두터이 하고 속마음을 터놓으며 가까이 지낼수 있습니다.

손님례절을 잘 지키자면 무엇보다도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맞이하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선 집에 찾아온 손님을 반갑고 친절하게 맞이하여야 합니다.

손님을 자기가 맞이하는 경우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반갑게 마중하며 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밖에서 손님이 찾으면 《누구십니까?》, 《이제 나갑니다.》 또는 《예.》 하고 대답하며 빨리 나가야 합니다.

이때 손님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면서 집안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손님이 모를 사람이라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또는 《누구를 찾습니까?》라고 친절하게 묻고 찾는 사람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잘못 찾아온 손님이라면 자기가 아는껏 대주고 안내하여주어야 합니다.

손님이 부모의 안내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손님의 덧옷, 모자, 가방 같은것을 받아 적중한 자리에 놓거나 걸어야 하며 손님을 방안의 맞춤한 좋은 자리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손님이 집에 머무르는동안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처음 찾아온 손님에게는 세면장이나 위생실 같은것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세수를 할 때에는 세면기에 물을 떠다놓을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부모들을 기다릴 때에는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텔레비죤이나 신문, 사진첩을 보여드리는것이 좋습니다.

손님의 물음에 바른 자세로 대답하고 손님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눌 때 말참견을 하거나 부산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명절날 손님이 왔을 때에는 집안분위기를 더욱 명랑하고 즐겁게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손님이 돌아갈 때에도 례절있게 바래워야 합니다.

손님에게는 맞아주는 첫인상도 깊이 새겨지지만 바래울 때의 인상은 더욱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손님이 떠나갈 때 편의를 성의껏 돌봐주며 대문이나 현관문밖에까지 나가 《또 오십시오.》, 《밤길에 조심히 다녀가십시오.》라고 친절하게 바래워주는것이 좋습니다.

손님례절을 잘 지키자면 다음으로 다른 집에 손님으로 찾아갔을 때 례절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다른 집에 찾아갈 일이 있을 때에는 이른새벽이나 밤늦게, 식사시간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찾아가는 집앞에 이르면 옷과 신발의 먼지를 털고 차림새를 단정히 해야 합니다.

집주인을 례절있게 찾아야 합니다.

출입문밖인가, 울타리밖인가 또는 밤인가, 낮인가에 따라 문두드리는 소리와 목소리의 높이를 맞춤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십니까?》, 《이 집이 3학년 1반 철이동무네 집입니까?》

집주인이 나오면 인사와 함께 찾아온 사연을 똑바로 말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이동무와 수학숙제를 같이 하려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의 례절을 바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주인이 청하거나 들어오라고 할 때 《예,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방안에 들어가면서 집식구들에게도 인사말을 하면서 가볍게 머리숙여 인사하여야 합니다.

일을 보는 과정에 손님으로서의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큰소리로 웃고 떠들어 주인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살피거나 주인의 허락없이 물건들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른들의 묻는 말에 몸가짐을 바로하고 알아들을수 있게 똑똑하게 대답하여야 합니다.

음식을 권할 때 례절있게 사양하거나 먹어야 합니다.

《저는 방금 먹고왔습니다. 어서 식사하십시오.》

《저는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한 돌아올 때의 례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집을 나설 때 그 집 식구모두에게 인사하거나 제일 웃어른에게 인사하여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머니, 돌아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문밖까지 바래주러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어서 들어가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따로 례절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의 례절풍습을 적극 살려 언제 어디서나 례절바르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제22과. 충실성의 참다운 귀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가의 생명입니다. 수령을 잘 모시고 받들어 수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 혁명가의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수령님을 잘 모시고 받들며 수령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푸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늘 간곡하게 가르쳐주시면서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따를만 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락으로 삼으시였습니다.

어느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학생소년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실 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종목이 끝날 때마다 맨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면서 아이들이 참 잘한다고 더없이 기뻐하시였습니다.

이때 수령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눈여겨보신분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기뻐하시니 우리 아이들이 제일이라고 소조원들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린 소조원들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그들의 곁을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시였습니다.

비록 작은것이라도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드리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나 크게 보시고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참으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을 평생의 락으로 삼으신 참다운 충실성 귀감이십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에서는 주무심도 휴식도 잊으시였고 천리길, 만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시였습니다.

그 나날속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기쁨드린 황철의 자동화가 완성되고 **김일성**경기장과 주체사상탑, 개선문, 평양산원, 창광원, 빙상관,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웅장화려한 거리들이 수많이 일떠섰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고 제때에 바로잡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어느해 금강산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휴양소에 우뚝 솟아있는 보이라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타래쳐오르는것을 보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지하자원이 묻혀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도 광산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연탄보이라재가 금강산의 경치에 손상을 주고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보이라굴뚝을 보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그후 금강산은 수령님의 의도대로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일수 있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문제까지도 헤아리시고 제때에 풀어드리시였습니다.

어느해 함박눈이 내리는 겨울밤이였습니다.

창턱에 눈이 쌓이는것도 모르시고 사업에 열중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전화를 받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화에서 감회가 깊으신 음성으로 함박눈이 쏟아지니 산에서 싸우던 때가 생각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작나갔던 전사들이 돌아오지 않아 밀영밖에서 함박눈을 맞으면서 그들을 기다리던 그 나날들을 추억하시였습니다.

조국이 해방된지도 오랜 세월이 흘러갔건만 항일의 나날들에 떠나간 전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보시며 잠못 이루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였습니다.

그날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 못 이루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헤아리시며 집무실에서 한밤을 지새우시였습니다.

그 이튿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확고한 결심이 어리신 어조로 렬사릉을 하나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렬사릉을 보다 훌륭히 개건확장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는 순간 일군들은 크나큰 감격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대성산 주작봉마루에 렬사릉을 다시 건설하도록 방향과 과업을 주시고 몸소 공사장에 나오시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공사가 완공된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대성산에 오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렬들이 죽어서도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렬사릉위치를 잘 잡았다고, 렬사들의 반신상을 동상으로 하니 모습이 더욱 생동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의 그 전사들을 감회깊이 회상하시였습니다.

참으로 렬사릉은 한밤중에 걸어오신 한통의 전화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헤아리시고 일떠세우신 충실성의 빛나는 창조물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수령님께 바치신 충실성은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력사적사실을 통하여 더 잘 알수 있습니다.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더 높이 모시도록 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참으로 충실성의 최고화신이십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처럼 열렬히 바라시던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시려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습니다.

한평생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쪽잠과 줴기밥으로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치신 **김정일**대원수님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천세만세 대를 이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충실성의 귀감을 적극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을 더 활짝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제23과. 말을 가려하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말 한마디, 행동하나도 심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과 행동을 되는대로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일을 그르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여도 심중하게 생각하고 하여야 합니다. 말을 생각없이 아무렇게나 하면 동무들사이가 버그러질수 있습니다.

말을 심중히 생각하고 할 말과 안할 말을 잘 가려해야 동무들사이에 오해가 없고 집단이 화목할수 있습니다.

말을 가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동무들을 비웃고 헐뜯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동무들사이에 서로 비웃고 헐뜯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것은 그들사이를 멀게 하고 집단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려놓는 례절없는 행동입니다.

우선 본인이 없는데서 동무의 뒤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무들사이에 할 말이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본인의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뒤에서 불평조나 시비조로 헐뜯는것은 동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배척하고 따돌리려는 나쁜 속심을 가진 행동입니다. 특히 동무의 사소한 결함을 과장하여 부산을 피우며 쓸데없이 말하기 좋아하는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뒤소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하기 싫어하는것입니다.

또한 질투심을 가지고 동무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투심은 다른 사람이 잘되는것을 공연히 배아파하면서 깎아내리려는 나쁜 심보입니다.

질투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되는것을 축하해줄 대신 언제나 비뚤어진 소리를 하면서 깎아내리려고 이 말, 저 말을 만들어 내돌리기 좋아합니다.

동무들이 잘되는것은 자기가 잘되고 집단이 잘되는것으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것이 도덕이고 례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은데서 동무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별치 않은 일을 가지고 동무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다른 동무에게 쌍스러운 말로 모욕을 주는것은 도덕수양이 매우 낮은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동무를 망탕 모욕적인 말로 공격하고 망신시키려드는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동무들사이와 집단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매우 불손한 행동으로서 오히려 자기자신의 망신으로 됩니다.

말을 가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제 자랑이 되는 말을 삼가하는것입니다.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어떤 일에서 자랑할만 한 일을 하면 자기가 자랑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을 동무들이 알고 평가하여줍니다. 혹시 동무들에게 꼭 말해야 할 경우에도 언제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말하여야 합니다.

우선 어떤 일이 잘되였을 때 그것을 동무들과 집단의 성과로 내세워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평가를 받으면 《집단과 동무들이 도와주었기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성과의 꽃다발이 다른 동무들에게 차례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집단과 동무들의 존경과 사랑을 더욱 받게 됩니다.

또한 남이 보기에는 큰것 같지 않은것을 자랑삼아 제말만 길게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제 자랑에 들떠 오래동안 제말만 하는것은 큰 실례로 됩니다.

무엇을 좀 알거나 잘한다고 만족해서 우쭐대면서 제 자랑 늘어놓기를 좋아하면 동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말을 가려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식사할 때 밥맛을 떨구는 말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식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것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밥맛이 돌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때문에 식사할 때에는 즐거운 마음을 더해주고 식사분위기를 좋게 하는 말을 하는것이 례절입니다.

우선 식사할 때 비위생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위생적인 말은 순간에 밥맛을 떨굽니다.

또한 꼭 충고주어야 할 말이 있어도 식사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하여야 합니다. 식사시간을 몇분 앞두고 충고하는 말을 하거나 식사하면서 충고하는 말을 하는것은 례의에 어긋납니다.

말을 가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떠돌아가는 말을 심중히 새겨보고 옮겨야 합니다.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들은 이야기가운데는 떠돌아가는 말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실이나 현실과 맞지 않는 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혼자만 듣고 사실을 가려 절대로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깊이 생각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옮기면 사람들사이에 리간을 조성시킬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집단을 뒤숭숭하게 만들거나 사회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범죄까지 저지를수 있습니다.

지금 미제원쑤놈들과 반동들은 사실과 맞지 않는 류언비어를 내돌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통일단결에 금이 가게 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적들이 내돌리는 류언비어에 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말을 가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상대방의 심리상태나 대상을 고려하여 자기만이 알고 더 번져지지 않게 하는것입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는 상대방의 심리상태나 대상을 고려하여 당분간 묻어두었다가 펴그나 시간이 지난 뒤에 말해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직에서만 알고 처리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일부 내용을 안다고 하여도 자기만이 알고있고 번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도덕적이고 집단과 동무들사이에 화목을 보장하는 옳바른 행동입니다.

우리모두 말을 가려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말 한마디하여도 심중히 생각해보고 하는 품성을 키워야 합니다.

제24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한 리수복영웅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자들의 심정입니다.》

리수복영웅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것보다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은 없다는것을 보여준 우리 시대 청년의 본보기입니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조국을 위하는것은 어머니를 위하는것과 같으며 어머니를 위하는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은인을 몰라보고 도리를 저버리는것을 인간의 죄중에 가장 큰 죄로 여겨왔습니다.

리수복영웅이야말로 자기의 삶과 행복을 꽃피워준 어머니조국에 도리를 다한 조선의 참된 아들입니다.

나에게는 인민군대에 나간 형님이 주고간 수첩 한권이 있습니다.

첫장을 펼치면 조국보위는 청년학생들의 영예롭고도 신성한 의무라고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이 또렷한 글자로 적혀있고 다음장에는 리수복영웅의 시가 적혀있습니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은 뜻이 가슴에 뜨겁게 새겨집니다.

(조국은 생명보다 귀중하다!)

인민군대에 입대하던 날 형님은 나에게 이 수첩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귀중히 간직하고다니던 수첩이다. 너에게 기념으로 주마. 이것을 읽어보면 이 형님이 왜 대학에 가지 않고 군대에 나갈 결심을 하게 되였는지 알수 있을게다.》

나는 지금도 형님생각이 날 때면 이 수첩을 꺼내보면서 생명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상급학교지망을 뒤로 미루고 군복을 입은 형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군 합니다.

원래 형님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결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민군대 영웅아저씨와의 상봉모임을 조직하였습니다.

학교에 찾아온 영웅아저씨는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나간 아저씨였는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리수복영웅이 싸우던 바로 그 부대에서 복무하고있었습니다.

아저씨의 넓은 가슴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영웅메달은 형님들의 마음을 크나큰 위훈의 세계에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때 영웅아저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속담에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래침략자들에게 조국을 빼앗긴 인민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것을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사람이 죽어 집안식구들이 울며불며 슬픔에 잠겨있는데 누가 개까지 돌보아주겠습니까? 그러니 그 개는 어데 가서 맞아도, 굶고돌아가도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로 상가집의 이 개처럼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학교와 일터에서 쫓겨났고 같은 일을 해도 일본놈들보다 돈을 절반도 못받았습니다. 수많은 조선청년들이 일제놈들의 대포밥으로 끌려갔고 나어린 녀학생들도 사랑하는 부모와 정든 고향땅과 생리별하고 일제놈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나중에는 일제놈들에게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기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이 없고 나라가 없었던탓이였습니다.

리수복영웅도 조국이 해방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열살이 넘도록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학교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러니 해방된 조국에서 마음껏 공부하고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리수복영웅은 다시는 피눈물나는 노예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이 귀중한 조국을 목숨바쳐 지키는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미제원쑤놈들과의 판가리싸움에 용약 떨쳐나섰습니다.

조국이 귀중함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기에 리수복영웅은 18살의 꽃나이에 불뿜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참으로 리수복영웅은 세기를 이어가며 자랑하고 내세워야 할 육탄영웅의 전형입니다. …

영웅아저씨와 상봉모임이 있은 다음부터 형님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자신의 문제를 놓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였습니다.

(그렇다. 조국은 생명보다 귀중하다. 조국을 빼앗긴 인민은 부모없는 고아와 같다. 조국이 있고서야 대학도 있고 래일의 희망도 있다. 나도 리수복영웅처럼 살자. 조국은 나에게 총을 먼저 잡을것을 요구한다. 군대에 나가자. 손에 총을 쥐고 조국을 지키자. 이것이 나를 키워준 어머니조국에 도리를 지키는것이 아니겠는가.)

형님의 이 결심은 신문과 방송, 텔레비죤을 통해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더 확고한것으로 굳어져갔습니다.

이렇게 되여 형님은 대학으로 가려던 결심을 바꾸어 인민군대에 나가게 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집은 군인가정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아바이병사》로서 1211고지를 지켜싸웠고 아버지는 미제놈들이 《푸에블로》호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던 때 총을 메고 조국을 지켰으며 오늘은 형님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결심을 가지고 조국보위초소에 서있습니다.

나는 형님이 두고간 수첩을 볼 때마다 리수복영웅의 시에 담긴 뜻을 깊이 새기면서 나도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이 간 그 길을 따라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나갈 결심을 하군 합니다.

왜냐하면 미제와 일제놈들이 우리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고 남조선의 반동놈들도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책동하고있기때문입니다.

나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님의 혁명전사답게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군복을 벗지 않을 결심입니다.

과외읽기

영웅의 중대를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8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몸소 1211고지를 찾으시였습니다. 고지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여기 어디 가까운 곳에 리수복중대가 있겠는데 아무리 길이 바쁘고 힘들어도 꼭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적진이 눈앞에 보이는 위험한 곳에 있는 리수복중대를 향하여 떠나게 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대에 도착하시자 병사들은 환호성을 터치며 장군님을 에워쌌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영웅중대동무들, 그새 잘들 있었는가 하시며 새 세대 병사들의 모습에서 리수복영웅의 모습을 보시는듯 매우 만족해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여기서 리수복영웅이 전사한 고지가 멀지 않지 하고 조용히 외우시더니 리수복영웅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18살의 꽃다운 청춘을 바쳐 용감하게 싸운 조선의 참된 아들이라고, 때문에 우리 당과 군대는 언제나 그를 잊지 않고있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리수복영웅은 오늘도 우리 당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습니다.

제25과. 례절을 대상과 정황에 맞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 집단주의적생활규범을 모범적으로 지키며 부모와 웃사람을 존경하고 동무들과 아래사람들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례절바르게 행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례절을 대상과 정황에 맞게 지켜야 언제 어디서나 례절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될수 있습니다.

웃사람들에 대한 례절과 아래사람들에 대한 례절이 같을수 없고 손님으로 갔을 때의 례절과 손님을 맞을 때의 례절이 같을수 없습니다. 표창을 받은 동무와 앓는 동무에 대한 례절, 만났을 때와 헤여질 때의 례절이 서로 다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례절은 대상과 정황에 맞아야 고상하고 도덕적인것으로 됩니다.

무엇보다도 높임과 낮춤이 대상과 정황에 맞아야 합니다.

웃사람에게는 항상 높임말을 쓰는것이 도덕입니다. 그러나 웃사람에게 쓰는 높임말도 대상과 정황에 맞게 쓰지 않으면 교양이 부족한것으로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말》의 높임말이 《말씀》입니다. 높임말인 《말씀》을 잘못 쓰면 대상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라고 하지 않고《제가 말씀한바와 같이…》라고 하면 자신을 스스로 높여 말하는것으로 되기때문에 례절이 없는것으로 됩니다.

높임과 함께 낮춤도 대상과 정황에 맞아야 도덕이 살아납니다. 아이가 어른에게 길을 물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로 대답하면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지나치게 높여 대하기때문에 놀리는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사도 때와 장소,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하여야 례절있는것으로 됩니다.

상가집에서 하는 인사는 위로가 알맞고 결혼식집에서 하는 인사는 축하가 적합합니다. 병문안에서는 고무격려가 어울리고 휴식하는 사람에게는 즐겁게 푹 쉬기를 바라는것이 적합합니다.

거리에서 웃사람을 만나면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히면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것이 도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뻐스나

식당안에서 웃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눈인사를 하면 됩니다. 뻐스와 식당안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려면 동작을 제대로 할수 없을뿐아니라 인사를 받는 사람이나 옆에서 보는 사람에게 어색한 감을 주게 됩니다.

웃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일어서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 오히려 옆의 손님과 인사를 받는 사람에게 실례로 됩니다.

눈으로 볼수 없는 밤에는 동작으로 하는 인사보다 말로 하는 인사가 알맞습니다.

편의를 도모해주는것도 대상과 정황에 맞아야 례절바르게 됩니다. 모르는것을 친절히 가르쳐주는것은 례의도덕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황에서나 다 그렇게 되는것이 아닙니다.

영화나 연극을 감상할 때 다음사건과 대사, 장면과 음악을 앞질러 설명하는것은 친절이 아니라 실례로 될수 있습니다.

그 누가 길을 물으면 친절히 가리켜주는것이 편의를 도모해주는것으로 됩니다. 이때에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가리켜야 례절있는것으로 됩니다. 길을 묻는 사람들가운데는 자기 고장에 대한 파악이 있는 사람도 있을수 있고 아주 생소한 사람도 있을수 있습니다. 자기 고장이 생소한 사람에게는 세세히 가리켜드리는것이 도덕적행동으로 되지만 같은 고장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간단명료하게 가리켜드리는것이 도덕적행동으로 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수표할 때 대출원의 만년필을 리용했다면 뚜껑을 맞추지 않고 돌려주는것이 례절있는 행동으로 됩니다. 뚜껑을 맞추어 돌려주면 글을 계속 쓰는 사람에게 지장을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만년필을 리용했을 때에는 뚜껑을 맞추어주는것이 도덕적입니다. 뚜껑을 맞추어주는 행동을 통하여 남의 물건을 빌려쓴 미안한감과 고마움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며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덜어주려는 마음이 표현됩니다.

차례와 순서도 대상과 정황에 맞게 지켜야 도덕적인것으로 됩니다.

웃사람과 아래사람이 함께 걸을 때에는 길이 잘 보이고 좋으면 웃사람이 앞서고 아래사람이 뒤에서 걷는것이 도덕입니다.

그러나 밤길을 걷거나 험한 길을 걸을 때에는 아래사람이 앞서서 뒤에 오는 웃사람을 친절히 인도해드리면서 걸어야 도덕에 맞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여야 웃사람을 존중하고 보살펴주는 례의도덕이 살아납니다.

강연회장소나 회의장에 들어갈 때에는 차례로 앞자리부터 앉는것이 도덕이지만 좌석표가 없는 곳에서 영화나 연극을 관람할 때에는 웃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잘 보이는 자리나 가운데자리부터 차지하는것은 도덕없는 행동입니다.

말에서 실수했거나 실례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량해를 얻고 사과할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도덕을 순조롭게 지키지 못할 딱한 정황에 놓이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누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가야 할 정황에서 뻐스나 전차를 남먼저 리용해야 할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량해를 구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병세가 위급하답니다. 미안하지만 뻐스에 먼저 오를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량해를 얻고 뻐스에 먼저 오르는것은 도덕적비난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에는 사과할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말에서 실수가 있을수 있고 실례되는 행동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례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불쾌감을 주고 오해와 불신을 낳을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등을 밟거나 누구를 밀쳐 실례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실례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사과하면 믿음을 깊이 할수 있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상과 정황에 맞게 례절을 지킴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례절바르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제26과. 집체생활할 때의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개별적사람들사이에서도 도덕을 잘 지켜야 하지만 개인이 집단에 대하여 옳은 도덕적관계를 가지는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답사와 견학, 야영 등으로 집과 학교를 떠나 려관, 야영소, 주민집들에서 집체적으로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집체생활할 때에는 다른 때보다도 례절바르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집체생활에서 례절을 잘 지켜야 집단의 화목과 단합이 보다 공고해질수 있습니다.

집체생활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식사례절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시간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집체생활에서 맞물려지는 다음 공정의 일과를 제대로 집행할수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나 려관과 야영소식당 어머니들에게 수고를 끼치는 도덕없는 행동으로 됩니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식사시간을 어겼을 경우에는 《늦어서 안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제 시간에 오겠습니다.》라고 미안한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서와 규률을 어기고도 제 잘못에 대하여 사과할줄 모른다면 그 이상 도덕없는 행동이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식사를 먼저 해야 할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부드럽게 사정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 급히 볼일이 있어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밥을 먼저 줄수 없겠습니까?》라고 사정할수 있습니다.

음식을 받을 때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음식을 배식구에서 받는 경우에는 한줄로 서서 차례차례 받아야 합니다. 먼저 받겠다고 배식구앞으로 끼여드는것은 질서를 문란시키는 도덕없는 행동으로 됩니다.

음식이 배식된 상태에서 자리를 차지할 때에는 한줄씩 질서있게 들어와 첫 좌석부터 차례대로 앉아야 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접대원이 배식하는 경우에는 웃사람과 먼거리에 앉은 동무들이 먼저 받게 하여야 합니다.

웃사람도, 차례도 모르고 제가 먼저 도중에 받아먹는것은 례절없는 행동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따로 준비한 음식이 있으면 웃사람과 동무들에게 먼저 권해야 합니다.

다른 동무에게 밥을 덜어주려면 먹기 전에 덜어주어야 합니다. 먹던 밥을 덜어주는것은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똑바로 앉아 조용히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나갈 때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밥을 먼저 먹었다고 하여 비좁은 틈을 헤치고 나갈것이 아니라 같은 식탁에 앉은 동무들이 식사를 다한 다음에 차례로 일어서서 나가야 합니다.

그릇을 내가야 하는 경우에는 소리가 나지 않게 퇴식구앞에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식당에서 나갈 때 선생님이 아직 식사중이면 먼저 나가게 된다는 인사말을 하여야 합니다.

《선생님, 먼저 먹고 나갑니다.》

《선생님, 많이 드십시오.》라고 인사말을 할수 있습니다.

집체생활할 때에는 다음으로 잠잘 때의 례절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손발이 불결하면 좋지 않은 냄새가 풍겨 방안의 공기를 흐리게 하고 다른 동무들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손발을 씻고 자면 잠도 잘 오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잠은 자기 방과 자기 잠자리에서 자야 합니다. 다른 방에 가서 자거나 자기 방에서 잔다고 하여도 잠자리를 골라가면서 여기저기 옮기는것은 다른 동무들을 무시하고 제 생각만 하는 개인리기주의의 표현이며 도덕없는 무례한 행동으로 됩니다. 뿐만아니라 집단의 규률과 질서를 위반한것으로 하여 비난의 대상으로 될수 있습니다.

잠잘 때에는 또한 잠자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집체생활에서는 언제나 다같이 자고 다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경우 먼저 자리에 눕거나 제시간에 일어날수 없는 때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량해를 구하며 미안한감을 표시해야 합니다.

앓는 동무가 생겼을 때 다른 동무들이 그를 따뜻이 돌봐주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잠자리도 제일 좋은 자리에 옮겨주어야 하며 옆에서 정성껏 간호해주어야 합니다.

집체생활에서는 잠잘 때 자기 생각만 하면서 불을 켜고 책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동무들이 자는데 슬그머니 일어나 음식을 먹거나 소곤소곤 말하는것은 실례로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기 전에 먼저 일어나 부산을 피우는것도 도덕없는 행동입니다.

기상시간이 되면 다같이 일어나 잠자리정돈을 잘해야 하며 누구나 방안과 바깥청소에 주인답게 참가해야 합니다.

집체생활할 때에는 다음으로 해당 지역에서 언제나 도덕적으로 행동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 해당 기관의 웃어른들에게 례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웃어른들을 만나면 머리숙여 인사하면서 례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안에서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의 어린 학생들을 친절히 대해주는것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중요한 례절입니다.

려관이나 야영소, 주민집에 대한 관리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합니다.

방안과 집주변을 깨끗이 거두어야 합니다.

마당을 정리하고 화단과 길가에 회칠을 하는 등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여야 합니다.

비품관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려관이나 야영소, 주민집의 비품들을 못쓰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품을 쓴 다음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만약 비품을 파손시켰거나 잃은 경우에는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집과 학교를 떠나 집체적으로 생활할 때 언제나 례절을 잘 지키는 훌륭한 학생이 되여야 합니다.

과외읽기

숭고한 풍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대학생들의 군사야영을 지도하시며 몸소 야영생활을 하시던 때의 일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게 된 야영소 일군들은 야영지의 조용한 곳에 방 한칸을 따로 꾸리였습니다.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그곳에 모시려고 하자 장군님께서는 독방을 굳이 사양하시고 야영생들과 한방에 잠자리를 정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침이면 마당도 쓰시고 체조도 하시고 개울로 달려가 랭수마찰도 하시면서 일과집행에서 언제나 모범을 보이시였습니다.

그리고 식사시간이 되면 대렬에 서시여 노래를 부르시며 식당으로 행진해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훈련이 시작되면 총창을 비껴드시고 고지로 치달아오르시였고 무기청소시간이 돌아오면 기름내 풍기는 무기를 열심히 닦으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한 야영생이 흰보를 씌운 그릇을 들고 병실에 들어와 책을 읽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앞에 내놓으면서 이제부터 식당에 다니시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말씀올리였습니다.

야영소지휘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영생들과 꼭같이 야전식당에서 잡곡섞인 식사를 드시는것이 너무도 송구스러워 운반식사를 보장해드리기로 하였던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내막을 아시고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왕 가져온 식사는 감기때문에 입맛을 잃은 동무에게 가져다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야영생들은 언제나 자기들과 꼭같이 평범한 병사가 되시여 오직 하나의 규률속에서 소박하고 겸손하게 생활하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풍모앞에 머리를 숙이였습니다.

제27과. 짓밟힌 인생

사람은 누구나 꼭같은 생명과 살 권리를 가지고 세상에 태여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귀중한 그 모든것을 빼앗기고 불행과 고통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군사파쑈독재가 살판치고 기아와 빈궁이 휩쓰는 인간생지옥에서 헤매고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판을 치는 남조선은 인민들이 기아와 빈궁, 무권리속에서 헤매이는 인간생지옥입니다.

어느날 남조선의 한 비행장에는 하늘가로 떠오르는 비행기를 따라가며 목놓아우는 한 녀인이 있었습니다.

《복녀야, 복—녀—야…》

허겁지겁 달려가며 웨쳤으나 비행기는 더 멀리로만 사라져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광경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살이 피둥피둥진 부자놈들과 그 녀편네들은 녀인에게 침을 뱉으면서 재수없다고 지껄여댔습니다.

놈들은 한가닥 인정마저 없는 놈들이였습니다.

딸을 부르며 애처롭게 우는 그 녀인은 서울 어느 빈민촌에서 가난하게 사는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에게는 병든 남편과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전까지 그의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였고 녀인은 부자집 삯빨래, 그릇닦기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그들 부부는 애들만이라도 복을 받으며 잘살기를 바래서 아들은 《복남》, 딸은 《복녀》라고 이름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갖 꿈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못가서 일자리에서 쫓겨났고 한해가 되도록 다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있었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이 통치하는 남조선은 인민들의 일할 권리마저 빼앗은 사람 못살 사회입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수백만의 실업자가 홍수처럼 밀려다니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직업안내소앞에 줄을 지어 서서 기다리지만 일자리는 좀처럼 차례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련이어 문을 닫고있는 형편에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식당접대부나 부자집심부름군자리가 차례지면 다행으로 여기고있습니다.



그러니 복남이 아버지같이 가난하고 공부도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을 따기와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복남이 아버지가 일자리를 얻으려고 거리를 헤매다가 집에 빈손으로 들어선 어느날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엄마, 배고파. 밥달라.》하며 조르던 복녀는 굶어서 말을 못하고 랭돌바닥에 쓰러져있었고 복남이는 오물장에서 주은 사과껍질을 동생에게 먹이며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고있었습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질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웬 낯선 사나이들이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 어머니에게 애들을 굶겨죽이지 말고 복녀를 양녀로 미국에 보내서 돈을 벌고 《호강》시키라고 구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격분을 참을수 없어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그렇게는 못한다.》 하고 소리치며 놈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가난한 집 애들을 먹여살려준다고 하면서 꾀여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어린이노예장사군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놈들은 남조선괴뢰도당과 짜고 불쌍한 어린이들을 다른 나라들에 팔아 많은 돈을 벌고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려간 아이들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이역땅에서 실험대상이 되여 각을 뜯기워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사는 놈들의 시중군이 되여 한평생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병신이 되여 사람들을 웃기는 구경거리로 팔려다니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런 놈들은 사람으로 태여났어도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놈들입니다.

복남이네 집에 나타난 놈들도 바로 그런 놈들이였습니다.

놈들을 쫓아버린 복남이 아버지는 그길로 피를 팔아 쌀 몇되박을 사서 부엌에 놓고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복남이 아버지는 피를 팔아서도 자식을 살려낼수 없었습니다.

복녀는 끝내 잃어졌습니다.

복남이 어머니는 복녀를 찾아 여기저기로 뛰여다니다가 뒤늦게야 딸을 어린이노예장사군놈들이 훔쳐갔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복남이 어머니는 그길로 비행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복녀가 물건이름을 붙인 상자안에 갇혀 짐짝처럼 비행기에 실려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사정해도 복녀를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끼 죽도 겨우 먹는 복남이네가 복녀를 찾을만 한 수만금의 돈을 가져올데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여 복녀는 아버지, 어머니품에서 떨어져 머나먼 이국땅으로 실려가고말았습니다.

생떼같은 자식을 한순간에 잃은 복남이 어머니는 너무도 기가 막혀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복남이 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또 다른 비참한 일이 어머니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복남이 아버지가 복남이와 함께 쥐약을 먹고 시체가 되여 굳어져있었던것입니다.

《아무리 살자고 애를 써도 살수 없는 세상에서 나는 자식을 먹여 살릴수도 없고 나도 더는 살수 없어 먼저 가오. 당신은 죽지 말고 어떻게 하나 살아서 이 저주로운 세상이 망하는것을 보아주오.》

남편이 남기고 간 글을 본 복남이 어머니도 정신을 잃고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생지옥인 남조선의 어느 한 가정이 당한 불행에 대한 한 토막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남조선에는 특권층들과 부자놈들을 내놓고는 누구나 다 이런 비참한 인생길을 걷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에서는 자살하는 건수가 날마다 늘어가고있습니다.

사람이 제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은 극도에 이르렀을 때에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조선은 말그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 못해 극도에 이른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인간생지옥에서 벗어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 안겨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오직 남녘땅에서 미제원쑤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 길뿐입니다.

제28과. 통일의 그날은 오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과업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나라는 미제침략자들이 남녘땅을 강점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도록 둘로 갈라져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에 의한 나라의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은 너무도 큰 불행과 고통, 재난을 겪고있습니다.

나라의 분렬은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혈육들이 서로 만나는것조차 가로막는 가슴아픈 고통과 불행을 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땅이 기름지고 풍요해서 농사가 잘되고 땅속의 보물이 많아 자랑스러우며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고기떼가 욱실거립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지혜롭고 문명하고 성실하며 남만 못지 않게 빨리 발전하려는 의욕이 강합니다.

우리 나라의 이 모든 자원과 재부, 우리 민족의 뛰여난 기질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입니다.

이 땅이 둘로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벌써 강성대국을 세우고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었을것입니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나라의 허리에는 600여리의 콩크리트장벽이 높이 쌓아져 북남으로 이어진 모든 산과 강, 호수가 막히고 동강나 사람들이 서로 오가지도 못하게 되였습니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하여 젊은 시절에 헤여진 우리의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생말년에조차 서로 만나지 못하고있으며 아들의 첫돌상을 차려주고 떠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다 자라 예순고개가 넘도록 만나지 못하고있습니다.

또 한날한시에 태여난 쌍둥이가 북과 남으로 헤여져 생사도 모르고 북에 있는 손녀가 남에 있는 할머니의 얼굴을 모르며 북에 있는 할아버지가 남에 있는 손자의 이름조차 모르고 사는 불행을 겪고있습니다.

한나절이면 이 나라 그 어디에도 가닿을수 있는 지척에 살면서도 혈육이 서로 만날수도 없고 편지 한장 나누지도 못하는 우리 민족의 불행과 고통은 참으로 통탄할 최대의 비극입니다.

더우기 미제침략자들이 판을 치고있는 남조선사회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놈들은 매일같이 전쟁연습을 벌려놓고 사람들을 들볶고있으며 길가던 어린 녀학생들까지 장갑차로 짓뭉개버리는 살륙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참으로 남조선은 인간생지옥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이와 같은 불행과 고통을 가장 가슴아프게 여기시며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애쓰신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어느해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였습니다.

이때 분계선 가까운 숲속에서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울려왔습니다.

소쩍— 소쩍…

갈라진 민족의 애타는 아픔을 장군님께 아뢰이는듯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소쩍새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멀리 남쪽하늘가로 눈길을 보내시였습니다.

그때 한무리의 밤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북으로북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격하신 음성으로 조국통일은 우리 세대에 맡겨진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의 숙원입니다.

그러나 조국통일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막아나서고있습니다.

놈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의 대화들을 파탄시키고 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정세를 계속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습니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 악랄하게 탄압해나서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렬주의세력도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념원을 짓밟아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침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 실현방도를 내놓으시였습니다.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다같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위업에 떨쳐나서야 한다는것이 바로 조국통일3대원칙입니다.

조국통일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련방제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련방제방식으로 한다는것은 지금 있는 북과 남의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단 통일국가를 세우는 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한다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지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습니다.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실현한다는것은 전민족이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전쟁을 방지하며 통일위업을 성취한다는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일은 자기들끼리 해야 잘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뭉쳐야 분렬의 얼음장벽도 봄날의 눈석이처럼 녹여낼수 있고 분렬주의세력도 력사의 거품으로 영영 밀어낼수 있습니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끊어진 철길과 파괴된 도로, 하늘길과 배길을 잇고 반세기가 넘도록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매듭짓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있는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반드시 실현하고야말것입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애국애족의 통일투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사회주의법

제1과. 미신행위와의 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미신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착취계급이 인민들을 몽매하게 하는데 리용되고있습니다.》

미신행위란 말그대로 있지도 않는《귀신》같은 허황한것을 믿는것을 말합니다.

옛날사람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라는것을 몰랐기때문에 미신행위를 하게 되였습니다. 무더기비가 오거나 왕가물이 들어도《귀신》이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았고 사람이 앓거나 무슨 일이 잘되지 않아도 《귀신》이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혁명연극 《성황당》에서 본것처럼 이 세상에 《귀신》이라는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귀신》한테 아무리 손이야 발이야 빌어도 자기운명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신행위의 해독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마음의 기둥에 손상을 준다는데 있습니다.

우리모두는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이러한 마음의 기둥은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귀중한 보검입니다.

그런데 미신행위는 사람들에게 자기 운명문제를 허황한데 의탁해서 해결해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하며 귀중한 보검에 녹이쓸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사람이 미신행위에 물젖으면 모든것을 《귀신》이 해준다는 어리석은 생각부터 하면서 《귀신》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해독스러운것이라는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원쑤놈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의 리용물로 될수 있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원쑤놈들은 미신행위를 하는자들을 돈과 물건을 미끼로 매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머저리로 만들어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도록 하려고 꾀하고있습니다.

미신행위를 철저히 막는것은 현시기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것은 미신행위를 퍼뜨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원쑤놈들의 책동이 오늘 더욱 악랄해지고있는것과 관련됩니다. 미제놈들과 반동놈들은 우리 나라에 미신행위를 퍼뜨리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있습니다. 놈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건달군들과 사상적으로 견실치 못한자들을 매수하여 미신책이나 선전물을 퍼뜨리려고 책동합니다.

미신책이나 선전물에는 교묘하게 파괴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례를 들면 어떤 병에는 사과나무껍질과 배나무껍질을 먹으면 낫는다고 함으로써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죽이게 하려고 하며 《손이 없는 날》이요, 《궁합》이요 하면서 사회에 무질서를 조장시키려고 합니다.

국가는 미신행위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좀먹는 아주 위험하고 해독스러운 행위라는데로부터 그것을 반대하여 법적투쟁을 강하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행정처벌법》에는 《점》을 치거나 《궁합》을 보는것과 같은 미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로동교양처벌을 하며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주면서 미신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한다고 되여있습니다.

그러면 미신행위와의 투쟁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미신행위는 주체사상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비과학적이며 허황한 짓입니다. 미신행위를 하게 되면 자기자신을 믿지 못하는 머저리가 되

며 나중에는 정신적불구자가 되여 조국을 배반하는 길에 굴러떨어질수 있습니다.

미신행위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신을 퍼뜨리는 책을 흥미거리로 보며 《점》을 쳐보는것과 같은 놀음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금보기》, 《신수보기》, 《손이 없는 날》이요, 《궁합》이요 하는 허황한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미신행위와의 투쟁에 모든 사람들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누구든지 미신행위를 하는자들을 보면 인민보안기관이나 학교에 제때에 알려야 합니다. 미신행위를 하는것을 보고도 모르는척 하면서 제때에 인민보안기관이나 학교에 알리지 않은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미신행위의 해독성을 잘 알고 미신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하여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제2과.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과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끌어들이고 퍼뜨리는 현상과의 투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밖으로부터 부르죠아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인 사상들과 부르죠아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침습해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미제원쑤놈들과 반동들은 우리 나라에 부르죠아《자유화》바람을 불어넣어 우리의 영원한 삶의 품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미제원쑤놈들과 온갖 반동들이 퍼뜨리는 부르죠아사상과 썩어빠진 생활양식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야금야금 좀먹고 해치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사람들이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과 썩어빠진 생활양식에 물젖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고 빛내이

기 위하여 투쟁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상적으로 흐리터분하게 되여 결국은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배움의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세상에 부럼없이 배우며 행복하게 살고있지만 사회주의를 잃게 되면 소나 말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미제원쑤놈들과 반동들은 우리의 전체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굳게 뭉쳤기때문에 함부로 덤벼들지는 못하고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우리를 사상적으로 타락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국가는 미제원쑤놈들과 온갖 반동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온 나라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법적투쟁에 모든 사람들이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참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록화기와 록화테프, 록음테프, 반도체라지오, 록음기에 달린 반도체라지오, 콤퓨터에 대한 리용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록화테프, 록음테프, 콤퓨터에 우리 인민의 감정과 풍습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는것은 모두 지워버려야 합니다.

소형라지오는 개인들이 가지고있어서는 안됩니다.

미제원쑤놈들은 소형라지오를 통해 심리모략전을 벌리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레코드, 사진, 필림, 그림들에 대한 리용질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문제될것이 없다고 제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망탕 리용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책들에 대한 리용질서도 바로 지켜야 합니다.

원쑤놈들은 책을 리용하여 부르죠아사상과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퍼뜨리려고 책동합니다.

다른 나라 방송을 듣거나 텔레비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 방송과 텔레비죤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필요한것이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를 반영하고있는 우리 나라 방송과 텔레비죤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남의 나라것을 듣거나 보겠습니까.

우리는 적들이 퍼뜨리는 온갖 불건전한 생활풍조를 막기 위한 총공세를 들이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모두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미제원쑤놈들과 온갖 반동들이 퍼뜨리는 썩어빠진 낡은 사상과 생활양식의 해독성을 가려보지 못하고 그에 맞장구를 치면서 생활하는자들은 인간쓰레기들로서 마땅히 인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런 행위를 하는자들이 나타난다면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합니다.

우리는 자기 가정, 자기 마을, 자기 학교와 직장에서 불건전한 현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인민보안기관에 알려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과 썩어빠진 생활양식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이 합니다.

록화기, 록화테프, 반도체라지오, 록음기에 달린 반도체라지오, 콤퓨터에 대한 리용질서를 어기거나 록음테프, 콤퓨터에 퇴페적인 내용이 들어있는것을 리용하였을 때에는 몰수합니다.

소형라지오를 가지고있거나 파는 경우, 레코드, 사진, 필림, 그림을 비롯한 출판선전물에 대한 리용질서를 어기였을 경우에도 몰수합니다.

퇴페적인 영화, 그림, 사진, 필림을 비법적으로 보았거나 퇴페적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경우에는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과 썩어빠진 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법적투쟁을 강하게 벌려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제3과. 불량행위와의 투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인민정권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법질서를 어기는자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여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비사회주의적현상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현상은 불량행위입니다.》

불량행위는 공동생활질서를 문란시키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원래 불량행위는 개인리기주의와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착취사회 특히 자본주의사회의 산물입니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불량행위를 해야 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나라에서는 남을 위해서 피와 살을 바치고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내대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많이 꽃펴나고있습니다.

동무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웃어른들과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남들이 힘들어할세라 자기가 힘든 일을 맡아하는 아름다운 미풍이 오늘 온 나라, 온 학교들에 넘쳐나고있습니다.

때문에 불량행위는 개인리기주의의 낡은 사상과 생활방식에 오염되여 사회에 무질서를 조성하고 남을 해치려는 위험한 행위로서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공중도덕과 질서를 문란시키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불량행위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의 생활풍조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불량자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지 못합니다.

국가는 불량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람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량행위를 무서운 범죄행위로 보고 싹이 돋아나는 단계에서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불량행위에는 어떤것이 속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집행하지 않고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문란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현상은 모두 불량행위에 속합니다.

학생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공부를 잘하는것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임무는 맡겨진 직장일을 성실히 하는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잘 나가지 않고 공부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명심해서 듣지 않으면서 허튼 생각과 장난을 하는 현상, 청년들이 직장일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일을 하기 싫어하면서 하는 일이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질과 허송세월로 날과 달을 보내고있는 현상은 다 불량행위에 속합니다.

옷차림과 머리형태를 해괴망측하게 하고 다니는 현상 다시말하여 청년들이 자체로 바지를 지내 좁게 만들어입거나 나팔통과 같이 고쳐서 입고 다니는 현상, 녀자들이 조선녀성의 풍습에 맞게 쌍태머리나 외태머리를 하지 않고 거지머리를 하고 다니는 현상들은 모두 불량행위입니다.

특히 식당과 시장, 뻐스정류소, 역기다림칸, 영화관, 공원, 유원지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싸움판을 벌리거나 패싸움을 벌리는 현상은 가장 위험한 불량행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봉사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생트집을 걸어 행패질을 하고 옷과 가방을 째며 도적질을 하는것, 불량패들끼리 서로 트집을 걸어 패싸움을 벌리며 질서를 문란시키는것은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있을수도 없고 허용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의 재산을 훔쳐 먹자판을 벌리는 현상도 불량행위입니다.

불량행위가운데는 녀자들을 희롱하는 현상도 속합니다. 불량자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속에 끼여 옷에 무엇을 발라주고 함부로 손을 대며 혼자 다니는 녀자들을 따라다니며 생트집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밤중이나 골목길에서 생명을 위협하며 돈과 물건을 빼앗는 불량행위가 성행하여 사람들이 마음놓고 다닐수도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박도 성행하고있습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 나라에 이와 같은 불량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사회에 무질서를 조성시키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불량행위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자그마한 불량행위도 나타나지 않도록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불량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불량행위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지난날의 불량행위와 같이 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제를 비롯한 온갖 원쑤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있습니다. 놈들은 불량행위를 조장시켜 우리의 일심단결된 힘을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불량행위를 하는것은 적들을 도와주는 반동적인 행동으로 됩니다.

또한 불량행위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가정과 인민반, 학교와 직장들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누구든지 불량행위를 하는자들을 보면 제때에 충고도 해주며 인민보안기관이나 검찰, 재판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불량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다면 제때에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자기의 잘못을 비판하고 인민보안기관에 스스로 찾아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불량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인민위원회와 검찰, 재판기관, 인민보안기관이 합니다.

《행정처벌법》에 따라 학교나 직장에 승인받지 않고 결근하거나 로동행정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며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조선사람의 풍습에 맞지 않게 하고 다닐 때에는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도 이런 행동에 의견과 충고를 준 사람에게 반항하거나 여러차례의 충고에도 고치지 않으면 로동교양처벌을 합니다.

때리면서 싸움질을 하거나 패싸움을 하면 로동교양처벌을 합니다.

공동생활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에도 법적처벌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별명 같은것을 불러 망신시키고 칼, 몽둥이 같은것으로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녀자들의 옷에 기름이나 더러운것을 발라주면서 추잡하게 행동하였을 경우에도 로동교양처벌을 줍니다.

공화국형법에 따라 사람을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사람을 때린 경우에는 로동교화형을 적용합니다.

칼, 돌, 몽둥이와 같은 흉기로 위협하면서 녀자들을 희롱하였거나 국가와 개인의 재산을 훔치고 빼앗았을 경우에는 로동교화형에 처합니다.

우리는 비사회주의적현상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불량행위가 싹트기 전에 제때에 짓뭉개버림으로써 온 나라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제4과. 리로운 산짐승과 새의 보호질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산림을 리용하여 산들에 사슴과 노루, 꿩, 클락새와 같은 동물이 욱실거리게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삼천리금수강산 우리 나라에는 인민생활에 리롭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여러가지 종류의 산짐승과 새들이 그 어디에나 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97종의 산짐승들과 394종의 새들이 있습니다.(조선범, 사슴, 노루, 복작노루, 사향노루, 산양, 검은돈, 너구리, 수달, 곰, 클락새, 꿩, 까치, 밀화부리, 원앙새, 박새, 두루미, 고니 등등)

산짐승들과 새들가운데는 맛있고 영양가 높은 고기와 진귀한 약재로 쓰이는 사슴, 노루, 사향노루, 곰, 꿩 같은것이 있는가 하면 농업생산을 늘이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고슴도치, 두더지, 박새, 제비, 딱따구리, 부엉이와 같은것들도 있습니다.

수리부엉이 한마리는 1년동안에 1 000마리의 쥐를 잡아먹습니다. 결국 수리부엉이 한마리를 보호하는것은 10t의 낟알을 얻어내는것과 같습니다. 제비 한마리는 하루에 파리와 모기, 벼대벌레, 깡충이와 같은 해로운 벌레를 100마리씩 잡아먹습니다. 이것은 한해여름에 한쌍이 새끼친 제비무리가 100만마리의 벌레를 잡아먹는것으로 됩니다.

국가는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고 그들에게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리로운 삼짐승과 새들을 보호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용동물보호법》과 규정들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정된 사냥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사냥허가증이 없이는 그 누구도 산짐승과 새를 사냥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기간에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준 사냥수단으로 허가받은 종류의 산짐승과 새를 사냥하여야 합니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특별보호구, 산짐승보호구, 새번식보호구, 유원지, 명승지, 휴양지, 주민지역에서 사냥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리로운 산짐승굴과 새둥지를 마스는 현상과 새끼를 잡거나 알을 줏는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리로운 산짐승굴에 불을 때거나 물을 붓는 현상과 폭발물, 독약, 마취제, 덫, 옹노, 함정, 사냥개 등 국가적으로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리로운 산짐승들과 새들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유용동물보호기간》인 3월부터 7월까지는 사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리로운 산짐승들과 새들에 해를 주는 승냥이, 늑대, 시라소니, 여우, 족제비, 삵, 독수리, 새매는 잡아없애야 합니다.

또한 리로운 산짐승과 새의 생활습성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생활조건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지역의 기후풍토와 특성에 맞게 산짐승과 새들을 보호하고 늘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러곳에 산짐승굴과 새둥지와 같은 리로운 산짐승과 새들의 살이터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자연상태에서 사는 짐승들과 새들의 생활은 단순한것 같지만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깊은 산속에서 사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벌판의 수풀속에서 살거나 제비와 같이 살림집처마밑에 둥지를 틀고 사는것도 있습니다. 먹이종류와 그것을 얻는 방법, 잠자리와 번식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산에 칡, 아카시아나무, 싸리나무, 새콩과 같은 넓은잎나무와 풀들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속에 있는 샘물터도 정리해주고 거기에 소금도 묻어주며 곳곳에 겨울먹이도 마련해놓아 리로운 산짐승과 새들이 모여들게 하여야 합니다.

리로운 산짐승과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과 통제는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인민보안기관이 합니다.

사냥허가증이 없이 리로운 산짐승과 새들을 잡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회수하고 10배의 가격으로 벌금을 물리며 엄중한 경우에는 로동교양처벌을 합니다.

사냥허가증에 지적된 산짐승과 새를 잡지 않고 나라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여있는 동물을 잡았을 경우에는 잡은 동물은 몰수하고 10배의 가격으로 벌금을 물리며 사냥허가증을 회수합니다.

폭발물, 독약, 마취제, 옹노 등 국가적으로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리로운 산짐승과 새를 잡았을 경우에는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합니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특별보호구, 보호구에서 사냥을 하였을 경우에는 로동교양처벌을 합니다.

유용동물보호기간에 사냥을 하는 경우에는 사냥허가증을 회수합니다.

우리는 유용동물보호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온 나라에 리로운 산짐승들과 새들이 욱실거리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제5과. 수산자원보호질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국가적으로 특별히 보호하게 되여있는 물고기와 머물성물고기, 새끼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쓰지 않게 된 어구들과 폭약 같은 것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은 나라의 귀중한 자연부원의 하나이며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세면에 바다를 끼고있으며 도처에 크고작은 강과 하천, 호수, 저수지들이 많은 우리 나라에는 여러가지 물고기가 욱실거리고있습니다. 그리고 해삼, 굴 등 맛좋고 영양가 높은 수산자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풍부한 수산자원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뿐아니라 공업의 원료, 축산업과 가금업의 사료로 리용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는것은 물고기와 조개, 해삼, 게, 새우, 바다나물 등 수산물생산을 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좋은 생활조건과 풍만한 자원을 먼 장래까지 리용하여야 할 귀중하고 고상한 사업입니다.

특히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수산물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조건에서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수산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보호하지 않고 망탕 잡거나 뜯으면 종자가 없어져 말라버리고맙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석명령 제1호와 주석명령 제7호로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여 우리 나라의 모든 강하천과 바다에 물고기가 욱실거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이르는 곳마다에 양어장을 건설하고 물고기를 많이 기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습니다.

국가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유훈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나라를 수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특별보호구에서는 물고기를 잡거나 바다나물을 뜯지 말고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여야 합니다.

자원이 줄어들고있는 가재미, 명태, 도루메기, 털게, 대게, 사게, 왕새우, 전복, 밥조개, 피조개, 대합, 바스레기, 가막조개, 해삼, 싹싹이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바다와 강하천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사는 수산자원은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역, 다시마, 김 같은 바다나물은 종자를 남겨놓고 뜯어야 합니다.

강하천을 오르내리며 알쓸이를 하는 송어, 연어, 황어, 뱅어, 은어, 뱀장어는 알쓸이시기에 잡지 말며 강하천에 언제를 쌓을 때에는 물고기길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물을 찌우고 새끼물고기를 잡거나 폭발물, 전기, 농약, 독약, 생석회, 카바이드와 같은 방법과 수단으로 물고기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창, 강도낚시, 주낙으로 물고기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물고기길과 갑문, 수문, 양수장에서 물고기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수산자원보호월간》인 4월과 7월에는 알쓸이시기이므로 절대로 물고기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낚시질은 정해진 곳에서 대낚시와 미끼가 있는 줄낚시로만 하여야 하며 밤에는 낚시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을 가진 엄지물고기나 새끼물고기가 잡히면 죽기 전에 놓아주어야 합니다.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수산자원보호감독기관과 인민보안기관이 합니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특별보호구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변상시킵니다.

자원이 줄어드는 머물성물고기를 잡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립니다.

폭발물, 강도낚시, 전기적수단, 독성물질 등으로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에는 로동교양처벌을 합니다.

종자를 남겨놓지 않고 바다나물을 뜯으며 물을 찌우고 물고기를 잡거나 알쓸이시기에 엄지물고기를 잡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원을 보호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수산법과 양어법의 요구대로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도덕과 법(중학교 제3학년용)

2판

집 필 전강건, 최명순, 정혜숙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및 콤퓨터편성 김학연

장 정 류명심 교정 강대선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1판발행 주체94(2005)년 2월 24일

2판발행 주체101(2012)년 6월 4일

교-12-보-688 값 5원